

한국전문신문협회, '2024 전문신문의 날' 기념식 성황리에 개최

협회 창립 60주년 맞아 각계에서 축하 메시지 쏟아져
윤백현 보건신문 대표 대통령표창 수훈
오경섭 일요저널 발행인 동암언론상 수상

한국전문신문협회(회장 김광탁, 이하 협회)가 '창립 60주년 전문신문의 날 기념식'을 지난 1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했다. ▶관련기사 8-9면

올해 협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담당관, 한국언론재단 남정호 미디어본부장, 일본전문신문 협회 이리사와 토오루 이사장, 한국인터넷언론협회 관계자 등 내빈들과 정부포상 및 표창 수상자, 한국전문신문상 수상자, 그리고 박두환 명예회장을 비롯한 역대 한국전문신문협회 회장과 전문신문 발행인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또한 국회 회기 등으로 기념식에 참석하지 못한 한덕수 국무총리,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영상축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재수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 허성무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 김선교 국회의원, 고동진 국회의원, 김승수 국회의원은 서면축사로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다.

본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기념사 △축사 및 축하영상 △정부포상 및 한국전문신문상 시상식 등이 진행됐다.

김광탁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60년간 전문신문은 각 분야가 필요로 하는 전문콘텐츠를 제공하며 국가의 경제 발전은 물론 국민들의 생활 향상에도 기여해 왔다고 자부한다"며 "앞으로도 독자들이 만족하는 신문, 꼭 읽어야 하는 신문,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신문이 되고자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전문신문은 미디어 변혁 시대를 맞아 모두가 함께 변화와 혁신을 위해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도 전문신문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데 힘을 보태 달라"고 호소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영상축사에서 "전문신문은 지난 60년간 다양한 산업의 깊이 있는 지식과 최신 동향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면서 국가발전의 동반자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변화의 중심에 서서 산업발전과 사회혁신에 이바지하는 전문신문으로 한층 더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영상축사를 통해 "특정 분야에 대한 심층적이고 다양한 정보, 분석적인 시각을 전달하는 전문신문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하기 힘든 독보적인 매력



2024 전문신문의 날 기념식에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을 지닌 매체라고 생각한다"며 "문화체육관광부도 전문신문이 관련 산업의 발전을 이끄는 중심축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과 함께 '정부포상 및 한국전문신문상 시상식'이 열렸다.

정부포상 시상식에서는 윤백현 보건신문 대표가 대통령표창을 수훈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은 △이민규 정보통신신문 편집인 △정성환 타임즈코어 편집장 △조정란 중소기업 기업뉴스 차장 △허수영 원예산업신문 차장 △민병진 축산신문 기자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전문신문상 시상식에서는 오경섭 일요저널 발행인이 동암언론상, 이

은원 영농자재신문 발행인이 경영상, 윤강희 장업신문 편집국장과 주병국 가스신문 기자가 취재상, 김영채 한국무역신문 편집차장이 편집상, 함택근 약업신문 광고부국장이 광고상, 최윤미 농촌여성신문 경리과장이 업무상을 수상했다. 이날 정부 표창 및 부문별 한국전문신문상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정부포상(6명)

△ 대통령 표창 : 윤백현 보건신문 대표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5명) : 이민규 정보통신신문 편집인, 정성환 타임즈코어 편집장, 조정란 중소기업 기업뉴스 차장, 허수영 원예산업신문 차장, 이진숙 기자 kosna1964@naver.com

민병진 축산신문 기자

▲ 한국전문신문상 수상자(7명)

△ 동암언론상 : 오경섭 일요저널 발행인
△ 경영상 : 이은원 영농자재신문 발행인
△ 취재상 : 윤강희 장업신문 편집국장, 주병국 가스신문 기자
△ 편집상 : 김영채 한국무역신문 편집차장
△ 광고상 : 함택근 약업신문 광고부국장
△ 업무상 : 최윤미 농촌여성신문 경리과장
이진숙 기자 kosna1964@naver.com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한국전문신문협회 창립 60주년 '2024 전문신문의 날' 기념식을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주신 전문언론인 여러분들을 비롯한 정부, 국회, 유관단체분들과 축사와 화환 등으로 축하해주신 분들,
그리고 수상자 및 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리사와 토오루 일본전문신문협회 이사장,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주무관, 남정호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본부장, 임정혁 전 대검차장 변호사, 임영문 대진대학교 총장

✿ 화환 및 축기를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태우 보건신문 발행인, 김종철 한국임업신문 발행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전진선 경기도 양평군수, 정승연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신화통신 한국지국장, 임영문 대진대학교 총장, 이천수 nbn인천지사 대표기자,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이보은 인천세종병원 대표, 배성한 한국 CTS 대표, 장용호 (주)IPD 대표, 정명훈 美 연방총한인회 회장

✉ 축하메시지를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전재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종배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선교 국민의힘 국회의원, 고동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ESG 혁신 선도”… ‘2024 대한민국 ESG 소비자 브랜드 대상’ 개최

이뉴스투데이

이뉴스투데이(발행인 방재홍)를 발행하는 서울미디어그룹이 창립 54주년을 맞아 ‘2024 대한민국 ESG 소비자 브랜드 대상’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지난 10월 25일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대한민국 ESG소비자 브랜드 대상 조직 위원회가 주최, 서울미디어그룹과 이뉴스투데이가 주관했다. 또 하나 중소벤처기업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IBK기업은행이 후원했다.

대한민국 ESG소비자 브랜드 대상은 환경 보호, 사회적 참여, 투명한 경영 등 ESG 원칙을 준수하는 우수 기업(관)을 선정해 소비자에게 알리고 있다. 기업(관)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에게는 지속 가능한 기업(관)을 선택할 수 있는 안내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방재홍 회장은 “오늘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하며, 각 기업에서 사회적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빛나는 활약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며 “앞으로 ‘대한민국 ESG 소비자 브랜드 대상’은 ESG 원칙을 준수하는 우수 기업과 근로자를 끊임없이 발굴, 격려하고 장려하는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아울러 서울미디어그룹은 ESG경영을 몸소 실천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정론직필’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장관상은 △신한은행(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LG유플러스(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상) △코웨이(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티오더(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가 수상했다.

이어 △빙그레(ESG 식품안전상) △LX하우시스(ESG 친환경 건축자재상) △블래야크(ESG 리사이클 혁신상) △한케이골프(ESG 그린스포츠 경영상) △락앤락(ESG 자원순환 실천상) △깨끗한나라(ESG 에코실천상) △당근마켓(ESG 디지털 자원순환 혁신상) △불스원(ESG 그린경영 선도상) △직방(ESG 디지털 부동산 혁신상) △아파트멘터리(ESG 그린인테리어상) △시큐리온(ESG 사회안전 기여

상) 등이 수상 영예를 안았다.

이외에도 △제이엘스탠다드(ESG AI 기술 혁신상) △스페이스브이(ESG 프롬테크 혁신상)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판교(ESG 호텔경영상) △대한건축사협회(ESG 친환경 건축 선도상)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ESG 디지털 포용상) △한국FPSB(ESG 금융교육 선도상) △이다 디자인연구소(ESG 혁신 디자인 선도상) △이학수 경기도의회 의원(의정 특별상) △정종윤 수원시의회 의원(의정 특별상) △안치용 용인시의회 의원(의정 특별상) △한국공인중개사협회(ESG 상생협력 혁신상) △쿠팡(ESG 물류 혁신상) △동방에프앤비부강옥(ESG 지역사회 상생상) △김수한 법무법인 이로 변호사(ESG 법률책임혁신상) 등이 수상해 각 분야 ESG 성과를 인정받았다.

“학교와 선생님만 보고 달려갈 것”

한국교육신문

한국교육신문을 발행하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40대 회장에 강주호 경남 진주동 중 교사가 당선됐다. 교총 역사상 최연소이자 최초의 30대 회장이다.

러닝메이트로 출마한 부회장단은 △김성종 천안 위례초 교장(수석부회장) △김선 경기 둔전초 교사 △왕한 열 대구 학남고 교장 △김진영 서울 경북비즈니스고 교사 △심창용 인천 경인교대 교수다. 교총 제40대 회장단의 임기는 12월 11일부터 3년이다.

한국교총 선거분과위원회는 지난 12월 11일 교총회관 다산홀에서 선거 결과를 발표했다. 전 회원 온라인 투표(12.5~12.10)로 진행된 선거 결과 기호 1번 강주호 후보가 총투표의 50.66%를 득표해 당선됐다. 기호 2번 권태환 후보는 49.34%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강 신임 회장은 이번 선거에서 ‘학교의 주체는 선생님, 선생님을 지켜



야 학교가 삽니다!’를 캐치프레이즈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학폭 범위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 △교권보호 119’ 가동·출동 △교원 보수·수당 현실화 △행정업무 완전 분리 등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학생인권특별법 저지, 초등 교과전담교사 확대, 주당 수업시수 20시간 미만 현실화, 교원 순직 인정제도 개선, 자율연수 및 학습연구년제 대폭 확대, 문제행동·위기학생 분리·진단·치료체계 구축, 저경력 교사 현장 적응 보호장치 마련,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등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신임 회장은 당선 소감에서 “엄중한 시기에 교총 회장에 당선된 만큼 기쁨보다는 책임감이 앞서고 있다”며 “임기 3년 동안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오직 학교와 선생님만을 보고 달려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살고, 학교가 살아야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며 “더 이상 우리 선생님들이 아파하고 학교를 떠나지 않도록 직접 전국을 두루 뛰어다니며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교총 회원을 대상으로도 “교총 변화를 통해 회원님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사심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감동교화로 진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갈 것”



밀교신문

밀교신문을 발행하는 대한불교진각종 제32대 통리원장 능원정사 취임 불사가 지난 12월 10일 서울 진각문화전승원 무진설법전에서 열렸다.

이날 통리원장 능원정사는 취임사를 통해 “진각 80년을 목전에 둔 종단은 다시 도약함으로써 진각 100년을 준비하고 다가올 진각 천년을 지향해야 한다”면서 “새 집행부는 ‘감동교화! 새 시대를 열자’는 기본 정신으로 위의 뜻을 잘 받들고 아래 사정을 잘 살펴서 미중물과 같은 종무행정을 펼치고자 한다. 감동교화



는 스스로 감동하고 가족과 이웃을 감동시켜 교화하고 포교하자는 뜻”이라고 전했다.

이어 능원정사는 “사람이 자신이라는 명예 아래 인재양성에 종무행정을 집중할 것이며 3.5세대를 맞이한 안정적인 재원마련과 법과 제도를 정비해서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종단미래의 희망과 비전을 가꿔 나가겠다”며 “총인원 등 각종 기구와 여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인프라를 개발하고 정상화 시켜서 재정자립도를 높이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능원정사는 “모든 진언행자들의 믿음 속에 새로 출범한 32대 집행부는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감동교화의 신행문화를 개발하고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권영희 당선인

“한약사-성분명처방 꼭 해결하겠다”



약사공론

약사공론을 발행하는 대한약사회 제41대 회장에 권영희 현서울지부장이 당선됐다. 임기는 내년 3월 초 대한약사회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받으면서 시작되며 3년이다.

이날 개표된 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는 총 유권자 수 3만6641명 중 2만7995명이 투표하며 투표율 76.4%를 기록했다.



7893명 중 1만978표, 39.2%를 얻어 당선됐다. 이어 박영달 후보는 8726표로 31.2%, 최광훈 후보는 8291표로 29.6%를 차지해 4:3:3의 비율로 회원 민심이 나누었다는 것이 확인됐다.

권 당선인은 “이번 대한약사회장 선거를 통해 앞으로 다가올 약사회 현안을 대하는 자세와 약사의 미래를 위해 나아갈 방향은 정해졌다”며 “한약사, 비대면진료, 약배달, 편의점약 확대 등 약사직능을 위협하는 현안에 대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민의 건강권과 약사의 전문성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성분명처방 제도화를 통해 약에 대한 주권을 회복하고 전문적인 약료 서비스의 기틀을 마련해 자랑스러운 약사의 미래를 향해 달려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기획 주간전문신문 Focus In 제2회 우수기사 선정기사

각 산업별로 짚어본 전문신문 현장 속으로

한국전문신문협회(회장 김광탁)가 '제2회 우수기사'를 선정해 시상식을 지난 11월 5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우수기사상'은 전문신문 매체에서 보도하는 우수기사를 선발하고 포상함으로써 자긍심을 높이고 전문신문의 질을 제고하고자 재정됐다.

총 14개 분야(농수축산, 의약, 종교, 교육, 건설, 식품, 뷰티·패션, 교통·에너지, 금융·세무, 라이프·경제)의 추천 결과 총 13건의 기사가 접수됐다. 이후 공정한 심사를 거쳐 △여성농업인 디지털 정보화 활용도 76.5%(농촌여성신문 이금미 취재부장) △미래차發 구조조정 시작…1년새 1차 협력 중소기업 8.4% 사라졌다(중소기업뉴스 이권진 기자) △사업주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둘러야(정보통신신문 서유덕 기자) 등 3건이 우수기사상으로 선정됐다.

이에 본 협회보는 제2회 우수기사로 선정된 2건의 기사를 소개하고자 한다.

/ 정리 이진숙 기자 kosna1964@naver.com

■ 농촌여성신문

여성농업인, 디지털 정보화 활용도 76.5%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진전으로 농업·농촌사회도 디지털·스마트화 물결을 거스를 수 없다. 하지 만 청년농이나 남성의 전유물로 치부되는 디지털·스마트 농업기술은 여성의 관행 농작업을 고착화하고, 이로 인해 여성들은 여전히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 농촌여성신문은 창간 17주년을 맞아 여성들이 디지털·스마트 전문 능력을 배양해 선도적인 농업을 경영하는 사례 등을 통해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타진해 본다.

농업생산 30% 스마트농업 전환?

윤석열 정부는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내세우며 지난해 10월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 방안'을 발표, 2027년까지 농업생산의 30%를 스마트농업으로 전환할 것을 선언하고 R&D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농업인에게 스마트·디지털 농업기술 관련 접근성은 여전히 낮다. 경기도농업기술

원이 운영하는 경기농업대학 스마트농업과 올해 전체 교육생 27명 중 여성은 단 5명에 불과하다.

경기도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스마트팜 이해와 스마트농업 현황, 시설하우스 환경관리, 농업 전기전자의 기초, 스마트팜 제어 이론·실습 등을 교육하는 스마트농업과는 올해뿐만 아니라 여성 교육생들에게 인기가 없는 과정"이라 고 말했다.

그나마 전자상거래와 온라인마케팅의 이해, 스마트스토어 가입작성 실습, 유튜브 동영상 촬영과 편집 등 과정의 농산물마케팅과 농촌체험 프로그램 기획, 지도기법·교수 학습법, 농촌체험 현장 교육, 비대면 체험 등 과정의 체험전문가 양성과는 여성 교육생이 절반 이상이다.

최근 들어 방제 작업에 활용되며 농가 일손을 덜어주는 드론 관련 실정도 마찬가지다. 2018년 부터 드론 교육을 실시해 활성화한 전남 영광군의 경우 영광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지금까지 250명이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조종자 자격증을



취득했으나, 이 중 여성 교육생은 20명에 불과했다. 또한 올해 교육생 40명 중 여성은 3명뿐이다.

영광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기술센터의 드론 자격증 과정은 자부담 50%로 진행돼 여성농업인에게도 적극 권유하는데, 여전히 드론을 농기계로 인식해 남성의 영역이라 여긴다"고 전했다.

체계적·전문적 교육 뒷받침돼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여성보다 남성에서 높고 저연령일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특히 농어민 디지털 정보화 활용 정도는 일반 국민으로

대변되는 도시민보다 낮았다.

지난해 모바일기기 보유율은 일반 국민 98.3%, 농어민 84.3%였으며, PC 보유율은 일반 국민 72.4%, 농어민 60.3%로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컸다. 일반 국민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본다면 농어민의 이용 능력은 70.6%, 활용 정도는 78.8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 농어민의 디지털 정보화 활용 정도는 82.5%인 데 반해 여성은 76.5%로 뒤떨어졌다.

모바일기기 보유율 역시 남성 농어민이 87.8%, 여성 80.6%다. PC 보유율은 남성 농어민이 62.9%, 여성 57.6%로 조사됐다.

농촌인구 고령화율은 1985년 5.3%에서 지난 해 49.8%로 치솟아 전반적 농업 인력구조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지속적인 인건비 상승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이 날로 가중되고 있고, 농번기 일용근로 수요의 약 70~80%를 외국 인력에 의존하는 현실이다.

이는 변화하는 디지털기술에 농업인, 특히 여성이 적응하고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까닭이기도 하다.

■ 중소기업뉴스

미래차發 구조조정 시작…1년새 1차 협력 중소기업 8.4% 사라졌다

"자동차 수출이 한국경제 경제회복의 견인 차입니다." 지난달 24일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기자들과 가진 현장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이날 강 차관은 현대차 아산공장을 둘러보고 있었다. 그는 "자동차(부품 포함) 수출 목표를 1000억달러(車 760억달러·부품 240억달러)로 상향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2월말 산업부는 수출 목표치를 전년동기 대비 5% 증가한 984억달러로 제시했다.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를 상향 수정한 것이다.

강 차관이 언론을 통해 1000억달러 달성을 자신한 배경에 대해 "한국 자동차 업계가 국제 경쟁력 확보하기 위해 내연차 중심에서 전기차·친환경차로 대전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자신감을 갖는 데는 진짜 이유가 있다. 현대차의 중장기 기업전략인 미래 전동화 로드맵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함께 현대차가 산업정책을 설계·제조해 수출 견인까지 하는 셈이다.

반면 현대·기아차와 내수 시장에서 경쟁 중인 한국지엠, KG모빌리티, 르노코리아 3개사가

느끼는 정부 정책지원의 온도차는 큰 편이다.

지난달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견 3사 자동차산업 공급망 위기극복과 대응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선 이들 3개사는 한목 소리로 "내수 시장 점유율도 줄고 미래차 정부 지원에서도 소외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2016년 20%가 넘던 중견 3사의 자동차 내수 점유율은 2023년 기준으로 10%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날 전문가 패널로 참석한 이항구 자동차 융합기술원장은 "3사의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 현대·기아차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3사는 전기차 준비도 부족해 앞으로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대·기아차에 전기차 지원 집중

또 다른 패널인 홍석범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장은 정부의 전기차 지원 정책이 현대·기아차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37개 부품사들이 지원을 승인받았지만 이 가운데 한국지엠 등 3사 부품업체는 21.6%에 불과했다. 이들 3사의 부품 협력사의 지원 승

인율은 6.3%로, 현대·기아차의 부품 협력사 14.1%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 외에도 1차 부품 협력사에서 밀려나거나 사라진 중소기업 수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 자동차산업협동조합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부품산업현황'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업체에 직접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 규모의 1차 협력사 수는 2023년말 기준 총 392개로 조사됐다.

문제는 2022년말 428개 대비 8.4%나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반면 중견 규모 이상의 1차 협력사 수는 같은 기간 301개에서 299개로 단 2개사만 감소했다.

이는 자동차 산업의 전동화 추세와 맞물려 국내 부품 공급망 구조조정이 중소 부품사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1차 중소 협력사들마저 1년 새 10% 가까이 줄어드는 심각한 구조조정 상황에서 이들과 거래관계에 있는 수많은 2, 3차 이상의 협력 중소기업들의 경영 타격은 이보다 훨씬 클 것이다"라고 짐작할 수 있다.

지난달 24일 강 차관의 자동차 수출 전망과 23일 열린 국회토론회는 얼핏 완성차 업체 간의 양극화 이슈로만 해석될 수 있지만, 본

질적으로 자동차산업 공급망 하위단계 기업의 불균형이 이뤄지고 있음을 경고하는 신호다.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는 2, 3, 4차 이상의 협력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정책지원 사각지대에서 줄줄이 나오되고 있다는 얘기다.

전기차의 부품 수는 기존 내연기관(3만개)보다 37%나 적은 1만9000여개다. 전동화가 늦은 부품 협력사들은 공급망 안에서 후순위로 금방 밀려날 수밖에 없다.

자동차 업계에선 전동화로 2030년 안에 무려 30% 가까운 내연기관 중심의 부품 중소기업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한다.

자동차 부품 제조 산업의 특성 때문에 업계가 예상하는 소멸 속도보다 폐업하는 기업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더 늘 수도 있다.

자동차 부품 제조는 정밀기계 공업을 중심으로 대량생산 방식을 특징으로 하면서도 종합 산업의 성격을 띤다. 이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자동차 산업과 이어진 다른 산업계로의 파급 효과가 상당하다.

전통적으로 현대차와 같은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은 주력 핵심사업이나 미래기술개발 경쟁에만 집중하는 반면에 다른 분야를 대부분 아웃소싱하는 전략적 방향을 선택하고 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1차, 2차, 3차, 4차 이상의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는 다중적 공급망 구조를 갖추게 된 배경이다.

공급망 내 경쟁이 협력中企 감소 야기
결국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은 '기업 대 기업'이라는 경쟁 구도보다 '공급망 대 공급망'의 대결 양상을 벌이고 있다. 그만큼 공급망 관리는 경쟁 우위의 핵심 요소인 것이다.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를 위해 현대차를 비롯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서로 비슷한 1차 협력사를 공유하며 각종 부품을 적시에 공급받고 있다.

그림①과 같이 마치 거대한 피라미드 구조에 서 부품 공급기업간 거래가 거미줄처럼 얹혀 있는 구조를 상상하면 쉽다.

하지만 대부분의 1차 협력사는 자신들의 하위에 있는 2차 하청업체에 대해선 말을 아낀다. 이는 '벌어져 있는 멀티협력 공급망(Open Multi-tier Supply Chain)'의 달리이다.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2차 업체 또한 3차 업체의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문제를 밀한다.

특히 정보와 자재의 흐름이 2차 협력사에서 1차로 그리고 다시 완성차 대기업으로 일방적으로 흘러간다. 완성차 업계와 2차 협력사 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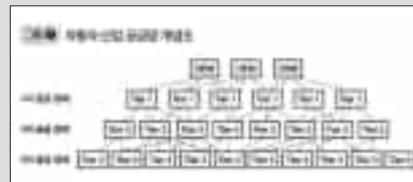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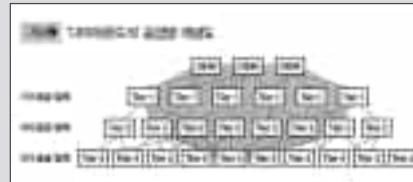


그림 2

는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존재하지 않으며 1차 협력사가 모든 중개역할을 맡는다.

글로벌 공급망관리 분야의 석학인 MIT대 요시 세피 교수는 그의 저서 뉴 애브노멀(New Abnormal)을 통해 "이를 경쟁 우위 중 하나인 독점 정보로 간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요시 세피 교수는 제한적인 정보와 자재의 흐름이 굳어지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던 폭넓은 피라미드식 공급망 구조는 무너지고 그림②

와 같이 '다이아몬드식' 구조가 나타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요시 세피 교수는 1차 협력사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하나의 2차 업체에 의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렇게 되면 1차 협력사의 납품 경쟁력에 큰 구멍이 생기기 마련이다.

만약 2차 협력사를 통해 내연 부품이나 전동화 부품들을 적시에 제공받지 못한다면 1차 협력사도 마찬가지로 OEM사인 완성차와의 거래 관계가 끊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박성택 충북대 교수 등이 2014년 발표한 '프로젝트 공급망에서 네트워크 배태성이 협업과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따르면 "1차 협력사의 가교역할 기능이 점차 퇴색되며 일정 시점에 이르면 2차 협력사가 1차를 제치고 직접 거래 관계를 개시할 수도 있다"고 명시했다. 이어 완성차 입장에선 협력사들에 대한 평가를 "생산여량보다는 기술력이나 서비스 제공 능력이 평가기준이 되는 경우 더욱 심화된다"고 후속했다.

미래차 기술로 인한 산업전환이 가속화되는 바로 지금이 얼마든지 △1차(대·중견)-1차(중소기업) 간의 기술·서비스 다툼 △1차 중소 협력

사의 잣은 이탈 △1차-2차 간의 자리 경쟁이 발생하는 산업 구조조정 시기인 것이다.

이때 대·중견기업 규모의 1차 협력사는 중소기업 1차 협력사와 비교해 기술력과 서비스 제공에서 우월한 위치를 장악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앞서 자동차산업협동조합이 발표한 1차 협력 중소기업 업체 수만 유독 1년 사이 8.4% 가까이 줄어든 이유를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는 단순히 1차 협력사의 문제가 아니다. 그림①과 같은 도식화된 공급망 구조에서 1차 중소 협력사 1곳이 문을 닫게 되면 더 영세한 2차 중소 협력사는 바로 매출 타격이 30% 이상 겪게 된다. 3차도 이와 같은 매출 감소 충격을 연달아 당하게 될 것이다.

만약 실제 거래관계가 이보다 더 복잡다면 2·3·4차로 이어지는 중소기업 부품회사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다. 미래차 쇼크로 자동차 중소 부품 공급망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위기 경고등에 불이 들어온 것이다.

■ 정보통신신문

사업주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둘러야

지난 1월 27일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처벌을 우려하는 사업주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각종 안내자료와 지원 방안을 쏟아내고 있으나, 일선 현장에서는 대표처벌과 폐업, 실직 '공포' 속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해하며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중대산업재해 시 1년 이상 징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1년 1월 26일 제정돼 1년이 경과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개인으로서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먼저, 중대산업재해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사례가 포함된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는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로 곧 개인사업주를 의미한다. 그리고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통상적으로 상법상 주식회사의 경우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

다만, 형식상의 직위나 명칭과 관계 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는 데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해석이다.

이와 관련, 수사기관은 직무, 책임과 권한,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

보건최고책임자(CSO)가 아닌 대표이사, 더 나아가 그룹오너(회장)를 의무이행주체로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는 경향을 보였다. 검찰은 회장이 계열사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에게 안전·보건 업무에 관해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등의 실질적·최종적 의사결정권을 행사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봄아 한다는 판단 기준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는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이다. 당초 개인사업자,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부칙 규정을 통해 2년간 유예기간을 둘었으나, 국회에서 추가 유예 법안이 처리되지 않아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 등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됐다.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간제, 단시간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 사업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처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과 본사의 상시근로자를 모두 합해 산정한다. 사업장들이 인접하지 않아도 하나의 기업으로 본다. 만약 하나의 회사에 본사 포함 4개의 직영 매장이 있고 각 직영 매장에 상시근로자를 4명씩 배치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

위험성평가 소홀하면 안 돼

정부는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개선 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 개선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이행해야 함을 강조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필요한 핵심요소로는 △경영자의 리더십 △인력·예산 등 자원 배정 △유해·위험요인 파악·개선 △점검·평가 등이 언급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받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먼저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를 수립해 회사 내 모든 종사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계시해야 한다.

또한 법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수를 확인하고, 안전보건관리 담당자·감독자 등을 지정하며, 재해 예방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안전보건 관리자를 둘 필요 없이 산안법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를 두면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장 순회 점검, 안전·보건 제안제도, 아차사고 신고 등 근로자의 의견 청취 절차를 두고, 비상대응체계를 수립해 훈련을 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상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확인·개선이 이뤄졌는지 정기적으로 점검·조치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에 정부는 '위험성평가'를 강조한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한 뒤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위험성평가는 지난 2022년 11월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쉽고 간편하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정비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위험성 수준을 간략하게 구분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상·중·하 또는 저·중·고와 같이 표시하는 '3단계 판단법' △목록에 제시된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체크리스트법' △핵심 질문에 단계적으로 답변하는 '핵심요인기술법(OPS)'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경영에 관심을 두고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일련의 노력과 과정은 중대재해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 자체가 부담" 중소기업 시름 가중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라, 중소기업의 대표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수사를 면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영세 사업장은 예산·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는 현실이다.

법조계에서는 법 자체가 중대산업재해의 예방보다는 책임자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수사기관 또한 형사책임을 물으려는 경향이 짙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을 분석한 한 변호사는 "검찰과 법원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판단을 엄격하게 하고 있다"며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려고 노력해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위험성의 발현으로 인해 벌어질지 모를 중대산업재해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한 정보통신공사업체 대표는 "불비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주가 직접 사업비와 일정, 품질, 현장 안전 같은 업무를 챙기느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단기간 내 완비하는 것이 어렵다"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주가 구속되면 회사는 폐업할 수 밖에 없고, 소속 근로자들 또한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이 죽고 다치는 걸 바라는 대표자는 없을 것"이라며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확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조금의 시간이나마 더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종진 부산시의원·장세인 스포츠한의학회장 '2024 한의혜민대상' 수상

한의신문

한의신문(발행인 윤성찬)을 발행하는 대한한의사협회가 '동의보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5주년·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26주년·한의신문 창간 57주년 기념식 및 2024한의혜민대상 시상식'을 지난 12월 10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개최된 가운데 영예의 한의혜민대상은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과 대한스포츠한의학회 장세인 회장이 공동 수상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개최되는 행사명이 유달리 긴데, 한의계에 있어서는 어느 것 하나 뺄 수 없는 모두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며, 동의보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및 한의협 창립, 한의신문 창간, 한의혜민대상 제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또한 '한의혜민대상 특별상'에는 한의약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



을 펼친 △이명규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일하 서울 동작구 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 △김진호 서울 강서문화원장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가 수상했다.

또한 동의보감 세계기록유산 등재 15주년을 기념해 전국 시도지부 한의사회와 협력해 한의약 발전에 크게 공헌한 △박옥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다운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이진선 광주광역시 북구청 통합돌봄정책팀장 △이화선 대구광역시 의료산업과 주무관 △김

송숙 충청남도 천안시 노인복지과 팀장 △이정엽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 위원 △현지홍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 △하기수 대한한의영상학회사무국장에게 감사패가 수여됐다.

이와 함께 한의신문 우수기고자인 제강우 구미수한의원장·이제원 비엠한방내과한의원장 및 한의신문의 발전을 위해 도움을 준 여태식 기기하브 대표·구태훈 옥천당공동탕전원장에게 감사패가, 최인영(동국대 한의대)·신현상(상지대 한의대)·이지훈(세명대 한의대) 학생에게는 장학금이 전달됐다.

2024 대한민국 농식품 ESG 경영대상

농수축산신문

농수축산신문(발행인 길경민)은 '2024 대한민국 농식품 ESG 경영대상' 시상식을 지난 11월 15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 멜로디·심포니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농수축산신문이 주최·주관하고, 농식품부·농촌진흥청·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국식품산업협회·농협사료가 후원했다.

'대한민국 농식품 ESG 경영대상'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확산에 기여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농업의 미래를 구현하고 있는 기업과 관계기관, 농업경제체, 협동조합 등에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는 △농식품부장관상을 콜마비엔에이치·구리농수산물공사 △농진청장상에 축산물품질평가원·남해화학·NH투자증권 △농수축산신문사장상에 대이정과·농업정책보험금융원·해남군청·천하제일사료 등 총 9개 기업·

기관이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농식품부장관상을 수상한 콜마비엔에이치와 구리농수산물공사는 심사위원들로부터 환경개선 노력과 사회적 책임 실천 활동, 투명 경영 활동 등 평가 부문 전반에 걸쳐 높은 점수를 받았다.

병원 정보화 혁신 동향 확인 '이곳에서! 한 번에!'

병원신문

병원신문(발행인 이성규)을 발행하는 대한병원협회가 지난 11월 22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HIP) 대강당에서 '제19회 병원 의료정보화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올해 19회를 맞이한 병원 의료정보화 발전 포럼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의 역할 수행, 자율점검표 작성 지원,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필수 교육이자 자율규제단체 총괄 전문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병협이 공동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자율규제 단체 개인정보보호 인정 교육이다.

이번 포럼은 정부의 보건의료 정보화 정책 방향에 발맞춰 회원 병원 의료정보화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실



질적인 정보 교류협력, 최신 병원 정보화 혁신, 정보보호 기술 동향 등으로 꾸려졌다.

포럼 프로그램은 의료정보 보안 정책 및 협력 방안 제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작성 방법, 의료기관 의료정보보호 및 역량 강화 방안, 의료정보 및 개인정보(정보보안) 관련 기술 동향 총 4부로 구성됐으며 최신 정보보안 장비·솔루션 부스 전시회와 개인정보 자율규제 상담 부스도 함께 열렸다.

행사 준비를 총괄한 김희열 병협 정

보화추진위원장(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장)은 병원 정보화 수준을 발전시키고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관계자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포럼 참석자들을 환영했다.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도 영상 축사를 통해 보건의료 정보화와 개인정보 보호라는 중요한 주제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게 돼 뜻깊다며 소감을 전했다.

'제1회 스마트기술 동영상 공모전' 17개 수상기업 선정



한국건설신문

한국건설신문(발행인 양기방)은 '제1회 스마트기술동영상 공모전 시상식'을 킨텍스 제1전시장 스테이지 A 세미나장에서 지난 10월 16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건설신문 주최, 스마트건설교류회 주관으로 열렸다.

공모전에는 100여편의 영상응모작이 출품되었으며, 스마트홈, AI를 활용한 스마트안전, BIM 등 다채로운 스마트기술 등이 선보였다.

이날 양기방 발행인은 "건설경기가 많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공모전 시상식, 제6회스마트건설세미나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주시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번 공모전 수상작은 다음과 같다.

△한국건설신문 영상대상 부문=어나더리얼(수상 김현주 대표)·합성데이터 기반 비전 AI 솔루션 어나더비전'·에이치에스소프트(수상 박명석 대표)·AI 영상관제 자동 위험성평가·고려소프트웨어(수상 남정용 대표)·'BIM정보 표준화' △서울특별시장상 부문=케이씨티이엔씨(수상 정인근 대표)·'미어캣' 봉고예측/삼성물산(수상 김승동, 문준호, 윤도수, 콘크리트 초음파 스캐너).

'2025 K-푸드 해외시장 진출 전략' 세미나 성료



식품음료신문

식품음료신문(발행인 이군호)은 '2025 K-푸드 해외시장 진출 전략 세미나'를 지난 10월 30일 aT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식품 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 전략 수립과 발전에 필요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년도 K-푸드 해외시장 진출 전략과 전망'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을 초청해 주요 지역의 시장 현황과 규제

은준태, 이병훈, 이수일, 조아라) '무인 압축강도 시험 로봇' △한국도로공사 스마트건설사업단장상=메이사(수상 최석원 대표, 김동영) '드론과 위성영상 활용'·씨엠엑스(수상 이기상 대표) '공사관리 패러다임 전환 콘цеп'·빔스온탑엔지니어링(수상 정혜나 대표) 3차원 역설계 BIM '공사비 절감' △한국토지주택공사 스마트단지기술처장상=더부엔지니어링(수상 김용희 대표) 차별화된 BIM '세상을 향한 도전'·크로스빔(수상 최희정 대표) 'PMIS 시공관리 협업툴 크로스팀'·두아즈(수상 김영태 대표) AI 챗 GPT '인공지능 비서' △킨텍스 사장상 부문=휴랜(수상 김춘상 대표) 스마트 안전관리 솔루션 대표 주자/지에스아이엘(수상 이정우 대표) '스마트 안전을 선도하는 글로벌리더' △스마트+인더리어포럼상=웅코리아일렉트릭(수상 이윤희 대표) JUNG(웅)과 함께 하는 스마트홈/이원오엠에스(수상 남형호 대표) 스마트 미러로 스타일리시한 삶의 경험' △한국건축시공학회장상 부문=현대엔지니어링(수상 김양범 팀장) 국내 최고 모듈러 기술력 '10년간의 노력' /큐클래스컴퍼니(수상 이기원 대표) 콘크리트 초음파 스캐너.

이슈를 파악, 현지 유통시장에서 요구하는 품목과 진출 방법, 선결 과제 등을 모색했다.

강연은 중앙대학교 하상도 교수가 좌장을 맡아 △2025 글로벌 식품 트렌드 및 유럽 시장 확대전략(민텔코리아 황태영 박사) △2025 미국 식품 시장 트렌드 및 규제 동향(J&B Food Consulting Jay Lee 대표) △2025 미국 식품유통 시장 진출 전략(왕글로벌넷 김상훈 이사) △2025 아세안 식품유통 시장진출 전략(트레이드파트너스 안지정 대표) 순으로 진행됐다.

[치의신보 창간 58주년 특집] 칠곡의 현대사, 대한치과의사협회 100주년

국민과 함께 100년 역사 품고 “세계로 미래로”

지난 1925년 우리나라 치과의사들은 일제의 압정에 굽하지 않고 우리 국민의 구강보건은 우리의 손으로 지켜야 한다는 의지를 모았다. 그로부터 100년,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격변하는 시대의 풍랑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국민의 곁을 지키며, 오늘날 세계를 선도하는 'K-덴티스트리'의 시대를 활짝 열었다. 이에 본지가 창간 58주년을 기념해, 대한치과의사협회를 토대로 국민과 함께 한 대한치과의사협회 100년 역사의 순간들을 되돌아봤다.

‘1호 치과의사’ 함석태 선생과 한성치과의사회

치아와 치과 치료에 관한 우리 기록은 '유리아 사금(儒理尼師今)'을 대표로 한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전문의료인으로서의 '치과의사' 자격은 1914년 '함석태(咸錫泰)' 선생이 최초 등록 했다. 그러나 일제강점 당시 실정상 한국인 치과 의사의 사회적 지위는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이를 짐작할 수 있도록 조선 최초의 치과의사단체인 '조선치과의사회'는 지난 1921년 창립 당시 임원 전원이 일본인 치과의사로 구성됐으며, 회원 중에서도 한국인 치과의사는 함석태, 김창규, 한동찬 단 3명뿐이었다고 기록은 전하고 있다. 이들 또한 창립총회에 참석했다는 증빙은 남아있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일제의 압정 속에서도 대한민국 구강보건의 꽃은 피었다. 오직 한국인만의 치과의사회가 1925년 조직된 것이다. 오늘날 치협이 뿌리를 두고 있는 '한성치과의사회(漢城齒科醫師會)'의 창립이다.

한성치과의사회는 일본 관헌의 감시 압력에 도 불구하고 이 땅에 치의학의 흙씨를 뿌렸다. 특히 초대 회장을 역임한 함석태 선생은 한국인 치과의사로서 사회에 봉사가 되는 일이라면 어떠한 노력도 불사해야 한다는 나리와 동포 사랑의 철학을 치과계 초석에 깊이 새기고자 노력했다. 그러한 정신을 오롯이 이어받았기에 치협은 국민과 함께 지난 100년 역사를 써 내려갈 수 있었다.

해방과 6·25 전쟁, 국민과 아픔 나눈 치협

일제강점기를 지나 1940~50년대, 해방과 6·25 전쟁이라는 희비가 갈마드는 격동의 시기에도 치협은 국민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했다. 치협은 미군정이 선포된 이듬해인 1946년에는 6월 9~15일

을 '구강위생 강조주간'으로 설정하고 전국 모든 치과의사가 무료 구강검사와 구강위생교육 활동을 펼쳤다. 또한 1946년부터는 무료 진료봉사대를 전국 파견해, 산간벽지까지 치과 의료 혜택을 나눴다.

1950년 전란의 순간에도 치협은 국민을 위한 인술을 펼쳤다. 당시 치협이 세계보건기구(WHO)에 전달한 바에 따르면, 서울 개원의 214명 중 약 80%가 전란에 휩쓸려 삶의 터전을 잃었다. 또 전국 대부분의 치과가 궤멸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보고된다. 그럼에도 치협은 1952년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에 임시진료소를 열고, 국민의 상처를 돌봤다.

무치의촌 순회 진료·새마을운동 참여

1953년 7월 27일 정전 협정이 체결됐지만 국민은 여전히 전란의 폐허 속에 시름하고 있었다. 이에 치협은 지난 1956년 무치의촌 순회진료반을 편성해, 방방곡곡 무료 진료 봉사를 펼쳤다. 또 같은 해 서울시치과의사회와 공동으로 주관한 제11회 구강위생강조주간에서 첫날인 6월 9일을 '구강위생의 날'로 정하고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전달하고자 했다.

국민을 위한 이러한 노력은 1960년대에 들어서는 더욱 활발하게 전개됐다. 1966년 12월 15일에는 본지의 전신인 '치과월보(齒科月報)'를 창간해 국민과 소통의 창구를 열었다. 특히 1968년 6월 8일 제23회 구강보건주간 기념식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치과용 이동진료차 10대를 하사하며,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고취했다.

1970년대 전개된 범국민 지역사회 개발 운동인 '새마을운동'에서도 치협은 앞장서기를 맹설이지 않았다. 1974년 치협은 전국 38개 반을 통해 '새마을 진료 활동'을 펼쳤다. 또 1976년 10월에는 회관 내 '새마을 치과진료원'을 개원했다. 그 뒤 1979년 휴원까지 새마을 치과진료원은 소외계층 3800명에게 무료 진료를 베풀었다. 기록에 따르면, 이때 참여한 치과의사 연인원만 1387명에 달했다. 당시 전국 치과의사 총원이 약 2600명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놓고 보면, 국민과 사회에 이바지하려는 치과의사들의 지대한 희생정신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 이 무렵 국내 당뇨병 위기론이 대두하자, 치협은 1977년 '설탕 덜 먹기' 운동을

전개하고 '설탕은 아편이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서울 명동 일대에서 가두 운동을 벌이는 등 국민 인식 개선에도 앞장섰다.

‘한강의 기적’과 ‘IMF’ 선진 의료 향한 여정

1980~90년대 우리나라 '한강의 기적'과 'IMF 위기'를 동시에 겪었다. 당시 치협은 전국적 치과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고 1989년 제14차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회의, 1997년 제85차 세계치과의사연맹(FDI) 서울 총회를 개최하는 등 선진 치과의료를 향한 본격 도약에 나섰다.

그만큼 사회 참여도 활발하게 전개했다. 치협은 1983년 'KAL기 격추 규탄대회', '아웅산 참사 규탄대회', '새마을 및 정화위원회'에 참가했다. 또 1988년 88올림픽 무렵 에이즈(AIDS) 감염 예방이 사회 문제로 대두하자, 대국민 예방 교육을 펼쳤다. 또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절 사업'을 확대하고 '치면 열구전색사업'을 실시하는 등 국가적 사업을 주도했다.

이러한 가운데 1997년 외환 위기(IMF) 사태가 불거지며, 수많은 국민이 노숙인으로 전락하는 불행에 처했다. 이에 치협은 노숙인 무료 진료센터를 개설해, 국민에게 위로의 손길을 건넸다. 또 경제력을 잃은 노인들에게 사랑의 틀니를 전달하고, 실업성금을 기탁하는 등 아낌없는 구호 활동을 펼쳤다.

‘K-덴티스트리 시대’ 치과 강대국 자리매김

이러한 역동의 시기를 견딘 치협은 200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본격적으로 국제 사회 선도에 나섰다. 특히 지난 2003년 윤홍렬 전 협회장이 세계치과의사연맹(FDI) 회장에 당선되며, 치협은 명실상부 전 세계 구강보건 리더의 자리에 올랐다.

또한 이 시기 치협은 우리나라 치과의료산업을 부흥하기 위한 터전을 일구는 데도 앞장섰다. 그 결과 오늘날 치과의료산업은 국민 먹거리의 한 축을 당당히 견인하는 국가 주요 산업으로 성장했다. 지난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치과 제품 수



출 규모는 12억4400만 달러(한화 약 1조7000억 원)로 전 세계 주요 35개국 중 5위를 기록했다. 특히 임플란트는 지난 2023년 수출 1조 원을 돌파하는 금자탑을 쌓았다.

이러한 치과의 성과는 곧 구강건강 증진 혜택으로 국민에게 되돌아가고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든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구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영유아의 경우 생애주기에 맞춰 4회 검진이 제공되고 있다. 또 19세 이상 성인은 연 1회 건강보험 스케일링을 낮은 부담으로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치과계는 셀 수 없이 많은 사업을 전개하며 국민에게 건강한 미소를 선사하고 있다.

그리고 오는 2025년 100주년을 맞이하는 치협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K-덴티스트리'의 시대를 활짝 열어젖힌다. 특히 내년 4월 11~13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하는 100주년 기념식에서는 '국민과 함께한 100년, 밝은 미소 100세까지'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만들 예정이다.

이제 국민과 함께 새로운 100년을 향해 달려나갈 대한치과의사협회.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치협이 그려나갈 밝은 미래를 치의신보가 응원한다.

[치의신보 창간 58주년 특집] 치과의사·국민 설문 분석

2024년 겨울 치의신보를 사이에 두고 만난 치과의사와 국민들의 생각은 이렇게 같고, 저렇게 달랐다.

치의신보가 창간 58주년을 맞아 실시한 특집 기획 설문조사에서 501명의 치과의사와 501명의 국민들에 던진 공통문항의 결과값은 같은 생각도, 다른 생각도 뚜렷한 양상으로 선을 그었다.

일단 치과의사의 이미지에 대해 이들의 생각은 큰 틀에서 같았다. 치과의사의 경우 스스로 생각하는 이미지에 대해 '긍정적'(328명, 65.5%) 또는 '매우 긍정적'(18명, 3.6%)이라는 응답이 69.1%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경우 '긍정적'(351명, 70%) 또는 '매우 긍정적'(38명, 7.6%)이라는 응답을 더하면 77.6%로 국민들의 긍정적 응답이 조금 더 높

았지만, 양측 모두 우상향 그래프를 그렸다는 점에서 비교적 유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긍정적 인식의 이유에 대해서도 양측은 모두 '전문직'(치과의사 63%, 국민 58.6%)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만 치과의사는 '일과 삶의 균형', 즉 위리밸을 두 번째 요소로 선택한 데 비해 국민들은 '높은 진료 수준'을 언급해 대조를 보였다.

특히 부정적 이미지의 이유를 놓고는 큰 인식 차를 드러냈다. 치과의사들이 '지나친 진료비 덤핑 행위'(55명, 35.5%)를 가장 먼저 거론한 데 반해 국민들은 '높은 진료비 책정'(81명, 72.3%)을 지적했다. 치과의사들이 진료비를 지나치게 낮춰 받는 일련의 행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성토한 데

반해 국민들은 오히려 높은 진료비가 걸림돌이 된다고 봤다.

치과의사의 사회적 영향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양측의 시각은 첨예하게 갈렸다. 치과의사들은 스스로의 사회적 영향력과 관련 '작은 편이다'(315명, 62.8%)라는 항목을 가장 많이 골랐다. '매우 작다'(48명, 9.6%)와 더하면 72.4%에 달한다. 반면 국민들은 절반 이상이 '큰 편이다'(293명, 58.5%)에 방점을 찍었다. 이를 '매우 크다'(48명, 9.6%)와 합하면 68.1%에 이른다.

각자 서로에게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던진 화두에도 이들의 생각은 교차했다. 환자에게 바라는 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 치과의사들은 '진료에 대한 기본적 신뢰'(290명, 57.9%)를 가

장 먼저 꼽았다. 이어 '낮은 진료비에 혼혹되지 않음'(144명, 28.7%), '정기적인 내원'(28명, 5.6%), '생활 속 구강 관리 철저'(23명, 4.6%), '다른 치과와 비교하지 않기'(15명, 3%) 등을 당부했다.

환자들의 경우 '낮은 진료비 책정'(211명, 42.1%)에 대해 가장 큰 목소리를 냈다. 이어 '진료 내용에 대한 친절한 설명'(137명, 27.3%), '높은 수준의 진료 제공'(82명, 16.4%), '진료 이후에도 꾸준한 관리 제공'(36명, 7.2%), '진료 대기시간 단축'(29명, 5.8%) 등을 차례로 소환했다.

결국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이 치과의사에게 전하고 싶은 갈급한 요구는 바로 '진료비 부담'이었고, 반대로 치과의사가 국민에게 전하고 싶은 열쇳말은 바로 '진료에 대한 신뢰'였다.

2024 전문신문의 날 기념식 이모저모

■ 기념사



김광탁
한국전문신문협회 회장

한국 전문신문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내외귀빈 여러분, 그리고 회원사 대표님들을 비롯한 전문신문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다시피 오늘은 전문신문협회가 창립된 지 60주년을 맞이하는 전문신문의 날입니다.

축하 자리에 함께하신 내외귀빈 여러분, 멀리 일본에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일본전문신문협회 이리사와 이사장님과 축하 사절단, 그리고 오늘 정부포상과 전문신문상을 받으시는 수상자 여러분들과 가족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문언론은 지난 60년간 전문산업 분야가

필요로 하는 전문 콘텐츠를 발굴해서 정보 욕구를 충족시켜 왔습니다. 종교, 교육, 문화, 농업, 보건, 의료, 건설 등 산업 전반의 전문화와 정보화를 선도하면서 국가경제 발전은 물론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해 왔습니다. 독자들이 만족하는 신문, 꼭 읽어야 하는 신문,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신문이 되고자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날 전문신문업계는 인공지능과 모바일이라는 디지털 혁신의 시대를 맞아 이에 걸맞는 혁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생성형 GPT가 미디어의 역할과 방법을 혁신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초고속 통신 환경에서 글로벌 실시간 공유가 가능해 졌습니다. 가짜뉴스가 시중을 뒤덮고, 조작된 뉴스가 언론계를 고사시키고 있습니다. 모바일로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지면 신문 설 땅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도전에 직면한 우리의 현실은 새로운 돌파구 마련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물이 뜨거워지는 줄도 모르고 무방비 희생당하는 실험실의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위기는 또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을 나눌 때 비로소 성공적인 출구전략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협력과 공유라는 바람을 타고 변화와 혁신의 파도를 넘는 승풍파랑(乘風破浪)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상생을 위한 전문신문인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 그리고 타월한 협력을 모아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부 당국에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난 수년동안 우리 협회는 걸맞지 않은 대우를 받아 왔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신문이 60년 역사에도 불구하고 전문신문 활동기반법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신문법에 전문신문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며, 이는 실제 전문언론 위상과 취재활동에서 불평등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전문신문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데 나서 줄 것을 요청합니다.

끝으로 오늘은 영예의 대통령 표창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그리고 한국전문신문상을 받게 된 여러분들께 협회 회원사와 전문언론 가족들의 뜻을 모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언론인으로서 바른 소명 의식과 정의 언론을 구현하고자 하는 자세는 우리 사회를 밝혀주는 등불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전문신문의 날을 축하해 주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귀빈, 그리고 전문신문 가족 여러분,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 뜻대로 이루하시고, 늘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축사

한덕수 국무총리



존경하는 전문언론인 여러분, 한국전문신문협회 창립 60주년과 2024 전문신문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동안 전문신문의 발전을 위해 애써오신 김광탁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영예로운 상을 받으시는 모든 수상자 여러분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신문은 지난 60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깊이 있는 지식과 최신 동향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면서, 국가발전의 동반자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산업별로 특화된 전문적인 정보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시장으로 나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의 결과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거대한 4차 산업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더욱 과감한 혁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달이 신뢰성 있는 정보를 찾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문신문인 여러분이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필요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미래를 위한 개혁의 견인차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변화의 중심에 서서 산업발전과 사회혁신에 이바지하는 전문신문으로 한층 더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국전문신문협회의 창립 60주년과 전문신문의 날 기념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영예로운 대통령 표창을 받으시는 윤백



현 보건신문 대표님, 장관 표창을 받게 되실 다섯 분의 수상자께 진심 어린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6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전문신문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김광탁 회장님을 비롯한 한국전문신문협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미디어의 다변화, 독자층의 축소로 우리 언론계가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분야에 대한 심층적으로 다양한 정보 또 분석적인 시각을 전달하는 전문신문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하기 힘든 독보적인 매력을 지닌 매체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많은 관계자들이 모인 이 자리가 독자의 일상과 업계를 풍요롭게 하는 전문신문의 밝은 미래를 위한 지혜를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전문신문이 관련 산업에 발전을 이끄는 중심축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재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2024 전문신문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 통해 전문신문이 걸어온 발자취와 업적을 되새기며, 산업언론으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다해 온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보내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산업·경제·교육·문화 각 분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전문적 시각을 제공해 온 전문신문 업계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한결같이 혼신해 오신 전문신문 종사자 여러분들의 노고는 오늘, 한

국전문신문협회의 창립 60주년이라는 영광을 맞이하게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와 기술혁신 속에서도 전문신문은 '각 분야 전문업계를 대변하는 산업언론'으로서 책임과 사명을 잊지 않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보와 가치를 계속해서 제공해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 또한 여러분의 곁에서 전문신문업계의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보태겠습니다. 다시 한번 2024 전문신문의 날을 축하드리며, 한국전문신문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리사와 토오루 일본전문신문협회 이사장



오늘은 한국전문신문협회가 창립 60주년 한국전문신문의 날을 맞이하는 뜻깊은 기념식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달 한국 소설가 한강 씨가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사실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대통령 표창, 장관 표창, 전문신문상을 수상하시는 수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지난 10월 17일 도쿄에서 개최된 일본전문신문대회에 바쁘신 와중에도 김 회장님을 비롯한 귀 협회의 많은 임원분들이 참석해 주셨고, 또한 기념식 및 리셉션에서 매우 정중한 축사를 해주셔서 이 자리에 빛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날 행사장에서 김광탁 회장께서 매우 슬픈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오랫동안 한국전문신문협회와 일본전문신문협회 간 교류와 친목에 애써주신 한기호 선생님이 별세하셨다는 소식입니다.

한기호 선생님은 귀국과 우리나라 전문신문협회 사이에 오랜 우호관계를 맺게 해준 가장 큰 은인입니다.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표하며,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지난 5월 말, 세계문화유산의 고장 경주에서 열린 연수회는 매우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연수회 주제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다루었는데, 이는 한·일 양국에서 큰 사회문제로 되고 있으며, 그 영향은 연금, 의료 등 사회보장정책에 국한되지 않고 향후 국가 시책의 모든 방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미디어 업계 관점에서 보면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SNS 등 정보 통신 수단의 디자인화로 인한 기준 미디어 이탈, 혹은 생성 AI의 출현 등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역풍이 되고 있으며, 양국의 미디어 업계 모두에게 커다란 경영상의 과제를 던져주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인식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큰 시대적 변화 속에서 기존의 가치관에만 얹매이지 않는 행동방식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는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의 전문신문협회에 공통된 과제를 해결하고, 양국의 전문신문협회의 미래를 위해 바トン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6년에는 우리가 귀 협회의 임원 여러분을 일본으로 모시고 합동 임원 연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의미 있는 연수회가 될 수 있도록 개최지를 포함한 문제를 협의하고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본전문신문협회 임원 모두는 기꺼이 여러분을 맞이할 것이며, 지금부터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일 양국의 우호와 번영 그리고 한국전문신문협회 여러분,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국전문신문협회 창립 60주년 2024 전문신문의 날 기념식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전문신문의 날 기념식에 함께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광탁 회장님을 비롯하여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오늘 귀한 상을 받으시는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한국전문신문협회는 전문산업 분야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정론직필, 공정보도 이념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슈를 전달하고 제공하며 많은 국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주었습니다.

또한, 전문 언론인들의 자질향상과 자긍심 고취, 권익향상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공론의 장을 제공하고, 공정한 보도와 비판으로 올바른 여론 형성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AI 시대에 걸맞는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더 나은 협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역시 국회에서 입법과 정책으로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전문신문협회 창립 60주년 2024 전문신문의 날 기념식 개최를 축하드리며, 오늘 이 행사에 함께해 주신 모든분들의 건성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존경하는 한국전문신문협회 회원 여러분, 한국전문신문협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2024 전문신문의 날을 기념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문 분야의 깊이 있는 정보와 통찰을 제공하며 국민들의 삶에 가치를 더하는 전문신문은 그 자체로 사회 발전의 중요한 조석입니다.

6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전문신문의 성장을 위해 헌신해 온 모든분들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특히 전문언론인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에 각 분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신뢰받는 미디어로서의 역할을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신문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더 큰 성장을 이루어 나가길 바랍니다.

한국전문신문협회가 대한민국 미디어의 미

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한국전문신문협회의 창립 60주년을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배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국전문신문협회 창립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전문신문협회는 60년의 역사를 가진 정통 언론단체로서 매년 세미나, 교육, 행사 등을 통하여 전문언론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를 통해 전문신문의 위상을 높이고 미래 정보사회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창립 60주년을 축하드리며 한국전문신문협회가 더욱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뜻깊은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여 죄송하오며, 멀리서나마 뜨거운 성원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교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국전문신문협회 창립 60주년과 2024 전문신문의 날 기념식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기념식을 주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김광탁 회장님을 비롯한 한국전문신문협회 회원사 발행인 및 언론인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전문신문협회는 1964년 4월에 전문신문사 발행인들이 협동하여 전문신문의 건전한 발전과 전문언론 창달에 기여하고자 창립되었으며 현재 117개의 전문신문사가 가입되어 있는 정통 언론 단체입니다.

뉴미디어 시대에 다양한 형태의 언론매체들이 등장하는 현재의 미디어 환경 속에 국민들에게 신뢰성 있는 전문 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미디어 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전문신문협회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한국전문신문협회가 정론직필의 정신을 기반으로 지난 60년간 다양한 전문분야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각 산업분야의 권익과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던 만큼 앞으로도 변함없는 역할을 기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하수영 원예산업신문 차장, 정성환 타임즈코어 편집장,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이민규 정보통신신문 편집인, 민병진 축산신문 기자, 조정란 중소기업뉴스 차장)



한국전문신문상을 수상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함택근 약업신문 광고부국장, 윤강희 창업신문 편집국장, 이은원 영농자재신문 발행인, 김광탁 한국전문신문협회 회장, 주병국 가스신문 기자, 최윤미 농촌여성신문 경리과장, 김영재 한국무역신문 편집차장)

다시 한번 한국전문신문협회 창립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한국전문신문협회의 발전을 통하여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정보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동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2024 전문신문의 날 기념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그동안 국내 전문신문을 창달하는데 애써오신 김광탁 회장님을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한국전문신문협회는 지난 60년간 다양한 분야의 전문신문사들과 함께 전문신문 발전을 위해 연구 및 조사사업, 세미나 등 전문신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많은 전문언론인분들이 한자리에 함께하는 만큼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는 뜻깊은 시간 되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와 산업 분야의 소식을 국민들에게 전달하는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2024 전문신문의 날 기념식 개최를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반 세기가 넘는 긴 기간 동안 전문언론으로서 투명한 산업 문화 창달 및 전문언론인들의



자질향상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노력해 온 한국전문신문협회 창립 60주년과 2024 전문신문의 날 기념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뜻깊은 행사를 주최해주신 한국전문신문협회 김광탁 회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바쁘신 가운데도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전문언론의 가치 아래 도전과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수상의 영예를 안은 유공자 여러분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미디어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올드 미디어의 대표격인 종이 신문의 구독자는 감소하고 있고, TV방송 시청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으며, SNS의 발전으로 정보는 범람하고, AI의 등장으로 가짜뉴스는 더욱 정교해져 진위여부를 판별하기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신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대중은 신뢰성 있는 미디어를 더욱 갈구하게 되었고, 사실에 기반한 전문신문의 신뢰성 있는 정보는 대중의 알 권리 충족과 함께 산업발전의 든든한 동반자로써 그 역할과 위상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신문은 그간 단순한 뉴스 제공을 넘어, 각 산업 업계의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을 반영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해 왔습니다.



대통령 표창을 수훈한 윤백현 보건신문 대표(사진 오른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암언론상을 수상한 오경섭 일요저널 발행인(사진 가운데)이 김광탁 한국전문신문협회 회장(사진 왼쪽)과 후원사인 약업신문 협용현 회장(사진 오른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행사 전 참석자들이 협회 회원사 신문들을 관심있게 보고 있다.

특히 깊이 있는 분석과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독자들에게 신뢰를 주고, 정부 정책과 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 왔습니다. 앞으로도 협회와 모든 회원사들이 올바른 정보 전달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개최되는 전문신문의 날 기념식이 거짓과 사실이 뒤엉킨 정보의 바다에서 올바른 사실을 전달하는 등대의 역할을 해주신 유공자들을 격려하고, 전문신문이 새롭게 나아갈 향로를 제시하는 뜻 깊은 행사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저 또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전문신문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을 수 있도록 정부 및 업계 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국회에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행사에 참석해주신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일 경기도 용인특례시 시장



한국전문신문협회 창립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행사에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주신 김광탁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전문신문협회는 60년간 전문신문 육성과 창달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대한민국 산업 분야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반도체, 인공지능 등 미래산업과

건설, 의학, 교육 등 각 전문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정호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본부장



한국전문신문협회 김광탁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정부포상과 한국전문신문상 수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2024 전문신문의

날 기념식에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한국전문신문협회 창립 60주년을 함께 축하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한국전문신문협회의 창립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동안 협회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한국전문신문협회는 1964년 창립 이후, 전문언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언론의 질적향상과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그동안 협회는 언론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언론의 역할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해왔습니다.

세미나와 기자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언론인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시상식을 통해 우수한 기자들의 공로를 인정하는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갔습니다.

오늘날 협회의 노력 덕분에 100여 개의 회원사가 함께하며 전문언론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4년 우리는 AI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혁명 속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보의 양을 기하급수적으로 늘

어나고 있으며, 그만큼 왜곡되거나 과장된 정보가 확산될 위험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보의 흥수가 넘쳐나는 시대에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언론의 역할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 맞춰 독자들과의 상호작용을 강화하고, 전문언론은 각 분야의 독자들의 소통을 이끌어내며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문신문협회의 창립 60주년은 단순히 지나온 역사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60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협회는 앞으로도 정보의 신뢰성을 지키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독자들과 깊은 소통을 이뤄가며 전문언론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오늘 기념식은 정부포상과 한국전문신문상을 수여받으시는 분들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수상자 여러분들의 뛰어난 업적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2024 전문신문의 날을 맞이하여 한국전문신문협회의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협회와 모든 회원사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전문언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상소감

대통령 표창

윤백현 보건신문 대표



보건신문은 올해로 창간 5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off-line 보건신문과 on-line 보건뉴스를 발행하고 있으며, 보건산업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홍보를 비롯해 의료, 제약, 식품, 화장품, 환경 등 관련산업 전반에 걸친 최신정보와 논평, 심층분석 기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건신문은 국내외 보건산업의 현주소를 냉철하게 점검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선도함으로써 국내 산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국민건강과 직결된 정보 제공으로 보건신문은 현재 정부 부처와 산학연 종사자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까지 챙겨보는 전문신문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저희 보건신문은 이제 반세기를 넘어 미래 100년을 향한 비상의 날개짓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한국전문신문협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되니, 저 개인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43년간의 저의 언론인 생활을 되돌아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도 된 것 같아 감회가 새롭습니다.

정부 관계자와 한국전문신문협회 김광탁 회장님께 감사드리고,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보건신문 유태우 회장님께도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대통령 표창장 수상을 계기로 더 심기 일전하여 보건신문과 한국전문신문협회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동암언론상 표창 일요저널 오경섭 발행인



드라마 '키스먼저 할까요?'의 ost처럼 모든 날 모든 순간, 알랭드 보통이 말한 무수한 매체들이 쏟아내는 정보와 뉴스의 홍수 시대에, 그리하여 오히려 국민들이 병향 상실과 무작위성의 바다에 내던져진 혼돈의 시대에, 전문신문은 세상을 향해 진리와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유일한 매체로, 대한민국과 언론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한 전문신문의 최고 영예인 '동암언론상'을 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식장에서 수상한 벽찬 기쁨과 뜨거운 행복감은, 차디찬 활자나 냉철한 언어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이며, "그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는 성경의 가르침과 "펜은 칼이나 총보다 강하다!"는 격언을 또 다시 가슴에 새기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눈길을 걸을 때 내가 남기는 발자국이 후대의 모범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조심했던 서산대사와 백범저널, '일신우일신'하고 저를 성찰하면서, 영예로운 <동암언론상> 수상에 부끄럽지 않도록 저의 매체와 전문신문의 발전을 위해 날마다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대학신문 창간 36주년 사설]

교육 패러다임의 대전환기, 고등교육 발전의 등대로 우뚝 서다

한국대학신문이 창간 36주년을 맞이했다. 1988년 “대학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첫발을 내디딘 아래, 한국대학신문은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발전과 함께 걸어 왔다. 36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이 이 슬로건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나라 유일의 고등교육정책 전문지로서 그 소임을 다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대학신문은 대학교육 주요 이슈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다양한 기획사를 통해 통찰력과 담론의장을 제공해왔다. 심층 기획 취재를 통해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적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학령인구 감소와 같은 도전 속에서 대학들이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략을 모색하도록 돋는 역할을 수행했다. 무엇보다 교육 패러다임 대전환기에 AI, 빅데이터, VR/AR 등 신기술의 교육 현장 적용과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해 보도해왔으며, 새로운 산학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소개함으로써 대학과 산업

계의 협력을 촉진했다.

지난 36년간 우리 고등교육은 눈부신 발전을 이뤘다.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도약을 이뤄냈고, 세계무대에서도 그 위상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큰 도전과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신기술 개발, 그리고 인공지능(AI) 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교육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로 다가온다. AI 기술의 발전은 개인 맞춤형 학습을 가능케 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습 분석은 학생 개개인의 학습 패턴과 성취도를 정밀하게 파악해, 최적화된 학습 경로를 제시하는 수준까지 발전하고 있다.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기술은 실감형 교육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발전이 곧바로 교육의 질

적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디지털 격차로 인한 교육 불평등, 대면 교육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온라인 교육의 한계, 그리고 기술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 등이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대학신문은 위기와 기회로 다가오는 새로운 사조 속에서 대학들이 능동적으로 이 상황에 대처해나갈 수 있도록 정보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한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라이즈(RISE) 시대를 맞아해 한국대학신문은 지역성과 글로벌 감각을 균형 있게 반영하며, 대학과 지역사회와의 동반 성장을 촉진하는데 보도의 역할을 두고자 한다.

지역사회 혁신 허브로서 대학의 교육, 연구, 산학협력 성과를 알리는 한편, 국내외 고등교육 정책과 트렌드를 분석해 지역 대학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나가고자 한다. 더불어 학령인구 감소와 같은 도전 속에서 대학들이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략을 모색하도록 돋는 역할을 수행하며, 교육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가교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갈 것이다.

이 밖에도 디지털 전환과 ESG 경영 시대를 맞아 이해 국내외 대학에서 추진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상황을 분석 보도하고, 특히 대학에 ESG 경영 가치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보도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한국대학신문은 지난 36년간 그려왔듯이, 앞으로도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갈 것이다. 우리는 변화의 시대에 더욱 빛나는 등대가 되어, 대학과 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을 위한 길잡이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대학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한국대학신문의 창간 정신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어질 것이며, 이는 곧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다.

[한국대학신문 창간 36주년 특집]

대학생 66.2%,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부정 평가’…36.8%는 “의대 증원 과학적 근거 없다”

한국대학신문은 매년 10월 15일 창간 기념일을 맞아 ‘전국 대학생 의식조사(이하 대학생 의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창간 36주년 기념 ‘2024년 전국 대학생 의식조사’는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5일까지 전국 대학생 1276명(한국대학신문 대학생평가단 패널)을 대상으로 온라인(모바일·PC)과 이메일을 통해 진행됐다. 신뢰수준은 95%, 최대 표본오차는 ±4.4%다. 응답자의 성별 비율은 남녀 동일하며 학년 비율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각 25%다. 전공계열은 인문사회 분야 38.8%, 자연·공학 분야 40.0%, 의료·간호·보건 분야 12.2%, 예체능 분야 9.0%다. 설문 문항은 △정치 분야(국정 운영 평가, 정치이념 성향) △사회 분야(저출산, 의정갈등) △교육·경제 분야(대학교육, 대학·입시정책, 무전공 확대, 외국인 유학생 정책, 생성형 인공지능, ESG 경영) △생활 분야(재테크, 아르바이트, 취업) 등으로 구성했다.

■ 정치 분야=대학생 집단은 MZ세대 집단이다. 2010년대까지 대학생 집단은 정치에 무관심한 편이었다. 그러나 2020년대 이후 MZ세대가 사회의 주류 세대로 떠오르며 각종 선거에서 대학생 집단을 포함, MZ세대의 표심이 선거의 향방을 가르고 있다. 이에 MZ세대, 대학생 집단의 국정 운영 평가는 시사점이 크다.

‘2024년 대학생 의식조사’에서 응답자의 66.2%가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을 부정적(부정적이다 34.8%+매우 부정적이다 31.4%)으로 평가했다. 경제·민생·물가·부동산 문제(41.7%)가 부정 평가 이유 1순위로 지목됐다. 경제·민생·물가·부동산은 일상생활과 직결된다. 경제·민생·물가·부동산 문제가 부정 평가 이유 1순위로 지목됐다는 것은 대학생들도 일상생활을 가장 중시한다는 의미다. 반면 긍정 평가 이유 1위로는 국방·외교·안보(53.5%)가 꼽혔다.

통상 정치이념 성향 구도는 ‘보수 vs 진보’로 구

분된다. 그러나 점차 중도층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대학생 집단도 마찬가지다. ‘2024년 대학생 의식조사’에서 대학생들의 61.0%는 이념성향을 ‘중도’라고 답했다. 진보 성향은 20.6%, 보수 성향은 18.4%였다.

■ 사회 분야=현재 국제연합(UN)은 65살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 시 고령화사회로, 14% 이상 시 고령사회로, 20% 이상 시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며 2000년에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이어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25년에는 65살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초과,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 현상 심화가 원인이다. 대학생들도 50.6%가 ‘대한민국의 출산율 저하 현상과 심각성을 잘 안다’고 답했으며 30.6%는 ‘매우 잘 안다’라고 답했다. 또한 대학생들은 아이를 원하지 않는 이유로 ‘기울 자신이 없어서(31.5%)’와 ‘앞으로의 한국의 교육 환경에 대한 미래 비전이 보이지 않아서(25.9%)’를 가장 많이 꼽았다. 개인적 사유가 아니라 사회적, 구조적 문제에 해당된다. 대학생들이 사회적, 구조적 문제 이유로 출산율을 기피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적극적인 정부의 대책이 요구된다.

현재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며 의료대란의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대학생들의 62.4%가 의정갈등을 심각하다(대체로 심각하다 40.0%+매우 심각하다 22.4%)고 인식하는 가운데 대학생들은 의정갈등의 원인으로 ‘정부의 일방통행 정책(41.0%)’과 ‘의사집단 이기주의(40.5%)’를 동시에 지적했다. 사실상 정부와 의사집단에 모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학생들의 36.8%는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없다(근거가 없다 26.6%+전혀 근거가 없다 10.2%)”고 응답,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다’라는 정부의 주장에

대조되고 있다.

■ 교육·경제 분야

=이제 ‘대학은 취업을 위해 가는 곳’이라는 말이 공식이다. 한국대학신문의 대학생 의식조사에서 취업이 대학 선택의 1순위 이유로 매년 꼽히고 있는 것. 실제

2018년 39.3%, 2019년 51%, 2020년 51.6%, 2021년 51%, 2022년 48.2%, 2023년 48.6%, 2024년 43.4%가 ‘취업에 유리한 조건 획득’을 대학 진학 선택 1순위 이유로 선택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학과 입시정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대학생들의 시선은 부정적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평가에서 부정 의견이 우세하다는 점과 일맥상통한다. ‘2024년 대학생 의식조사’에서 대학생들의 37.6%는 ‘현 정부의 대학정책이나 입시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라고 답했으며 18.6%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다. 또한 대학·입시정책 개선과제로는 ‘입시제도’가 38.8%로 1위였다.

2025학년도 대입 특징의 하나가 무전공 선발 확대다. 무전공에 대한 대학생들의 평가는 긍정 평가 우세했다. 42.0%가 ‘긍정적이다’라고 답했고 12.8%가 ‘부정적이다’라고 답한 것. 이는 전공 선택 없이 대학에 입학한 뒤 1학년 때 자유롭게 진로를 탐색하고, 2학년에 올라갈 때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는 무전공의 장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을 30만 명 유치, 세계 10대 유학강국으로 도약할 방침이다. 그러나 대학생들은 37.2%가 ‘보통이다’ 그리고 34.8%(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다 26.0%+전혀 실효



성이 없는 정책이다 8.8%)가 ‘실효성이 없다’라고 응답,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계획을 신뢰하지 않았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역을 확장한다면,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지역으로 ‘아시아(43.8%)’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특히 대학생들은 외국인 유학생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 ‘교육·취업·정주 정책(34.4%)’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제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다. 대표적으로 챗GPT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자연스레 대학생들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이용 경험도 증가하고 있다. ‘2024년 대학생 의식조사’에서 86.6%(무료 이용 76.2%+유료 이용 10.4%)가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라고 답했다. 대학생들이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분야는 ‘학업(76.0%)’이었다. 하지만 챗GPT의 경우 대학생들이 학업에 활용할 때 부정행위 우려도 제기, 각 대학의 부정행위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이 강조되면서 대학에서도 ESG 경영 도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대학생들도 응답자의 52.8%가 ‘대학에서도 ESG 경영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21.2%는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다.

[장업신문 창간 30주년 발행인 기념사]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묵묵히 나아갈 터



이관치 발행인

존경하는 애독자 여러분, 정론언론으로서의 가치를 다하여 묵묵히 화장품 산업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장업신문이 올해 창간 3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뒤돌아보면 화장품 미용업계는 그동안 많은 부침과 어려움 속에서도 세계 4위의 화장품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장업신문도 충실했던 동반자로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변화의 물꼬를 트는 초석을 다지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언제나 현장의 목소리와 최신 트렌드를 알리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며, 정론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국내 화장품 산업은 기술제휴로 외국의 기술을 받아들이고 자체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80년대부터 성장을 시작해 독자적 기술력 발전을 이룬 90년대를 지나,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으며 큰 폭의 성장을 이뤘습니다. 이제는 글로벌 시장에서 4위에 오르며 글로벌 화장품 리더로서 세계 화장품 시장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업신문이 창간됐던 1994년은 방문판매 시장에서 전문점이 주축으로 한 시판시장이 활성화됐던 시기입니다. 화장품 전문점이 2만 여개를 웃돌 정도로 성장해 나가면서 화장품 기업도 전문화되며 변화의 물꼬가 이뤄졌습니다. OEM 산업의 기초가 만들어졌으며 판매자 가격표시제도 도입, 화장품법 독립 제정, 책임판매업체 도입에 따른 허가제에서 등록제로의 변환 등 화장품 산업은 혁신적인 변화와 세계 시장에서 성장하기 위한 기술우위의 전략을 마련해 노력해 왔습니다.

장업신문도 이에 발맞춰 화장품 미용업

계의 변화와 혁신에 언제나 함께하는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그리 밝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세계적인 뷰티 강국으로 발돋움하며 트렌드를 이끌어 나가고 있지만, 수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화장품 원료 안전성 평가 시스템, 미국의 화장품현대화법 등 각국은 화장품 뷰티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비관세 장벽을 마련하며 자국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수출 위주의 산업으로 전환된 화장품 미용업계가 앞으로 고도의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차별화된 제품 전략을 필요하겠지만, 에어쿠션 이후 세계적인 트렌드를 창출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세계적인 화두인 ESG에 맞춘 변화와 중소기업의 육성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업 경영에서 이윤을 많이 내는 것이 가장 최고라는

자본의 가치에서 벗어나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nance)에 더 중요한 가치를 두는 ESG에 맞춰 새로운 변화를 창출할 때 성장이 지속될 것입니다.

특히 2만여개가 넘어가는 화장품기업 중 90% 이상이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감안, 강소기업과 스타트업, 중소기업을 꾸준히 발굴하고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변화와 도전은 언제나 항상 필요합니다. 장업신문 임직원들도 노력과 열정을 담아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정론언론으로서의 가치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며, 독자 여러분께서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글로벌 트렌드에 맞춘 기사 발굴 등 앞으로도 변화될 미래를 위해 또 한번 힘찬 발걸음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언제나 함께하는 동반자인 장업신문이 여러분의 앞날에 축복이 함께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장업신문 창간 30주년 특집]

중국 화장품 시장, 이제는 우리 기업의 새로운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때



가기경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중국(中國),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에게는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애증의 시장이다.

2000년대 중반, 중국의 경제성장, 한중 관계 확대 및 한류의 확산을 바탕으로

로 시작된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의 성공은 한중 관계, 중국 화장품 수출인증 법령 강화, 중국 경제상황의 변화를 바탕으로 롤러코스터와 같은 변화를 겪어왔다.

이에,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피로감이 쌓인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은 변화된 한중관계, 중국 화장품법의 강화에 따른 높아진 진입장벽, 중국 경제성장 둔화 등의 이유로 다른 대안시장들을 찾기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높아진 한국의 위상, K-Culture의 글로벌화를 바탕으로 아세안, 유럽, 미국 등 다양한 시장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의 수출 다양화라는 긍정적 성과로 나타나고 있지만, 항상 마음한켠에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남아 있는 상황이다.

□ 중국 화장품 시장 현황 분석

***중국 화장품 수출현황**=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은 코로나 기간에도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며 큰 성과를 거둬왔다.(전체 수출액 2020년 15.6%, 2021년 21.3% 성장)

■**중국 수출은 2020년, 2021년 전체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2022년 이후 달라진 한중관계,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구 다양화에 따른 중국 시장 진출 활동의 감소 등으로 20% 이상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도 9월 누적 수출액이 전년 총 수출액 대비 64.3% 수준으로 75% 이하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마이**

너스 성장이 예상된다.

이는 변화된 한중관계의 지속 예상, 중국 내 화장품 비즈니스 인력의 국내 귀국, 중국 경제의 침체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활동이 둔화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중국 화장품 시장 동향**= 중국 화장품 시장을 코로나 시기 -7%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 외에는 지속적으로 5~7%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바탕으로 북경, 상해, 광주 외에도 내륙 및 서부지역, 동북 지역으로 발전이 확대되면서 시장의 저변이 확대될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중국 경제의 침체 영향으로 올해 성장률은 기존의 평균 성장률을 밑도는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살펴볼 중국 화장품 시장의 주요 키워드들을 참고한다면 전체 화장품 시장의 저성장 기조에도 나만의 시장과 그 시장에서의 성공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1) 화장품 성분 및 효과에 대한 관심 확대: 우리나라에도 2000년대 이후 화장품 성분 및 기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듯이 화장품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 중국 소비자들도 점차 화장품의 기능과 성분을 중요시 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경제 불황과 더불어 비싼 브랜드 중심의 구매보다는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기능과 성분을 가진 화장품을 찾는 소비자가 많이진 것이다.

(2) 사회적 책임이 반영된 화장품 수요 확대: 기존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에서부터 시작된 화장품의 컨셉화 경향은 동물실험을 하지 않고 동물유래 성분을 배제하는 비건(VEGAN)화장품을 거쳐 피부의 안전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클린 뷰티'(CLEAN BEAUTY)로 발전하고 있다.

(3) 높은 효능과 안전성을 갖춘 의료미용 화장

품 인기: 2023년 초 코로나 펜데믹으로부터 중국이 리오프닝을 실시한 이후 중국의 공장들이 재가동되면서 대기환경의 질이 나빠지며, 코로나 시기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중국 소비자들은 화장품을 선택할 때에도 안전성을 기반으로 좀 더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강화된 의료미용 화장품을 찾는 경향이 높아졌다. 우리나라로 일찍이 피부과를 중심으로 제품 개발 단계부터 의료기술을 접목해 효능뿐만 아니라 안전성이 보장된 제품을 개발해 온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살려 중국형 제품을 개발하며 합리적 가격에 공급한다면 새로운 시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현재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은 불확실성이 높아졌던 중국 시장에서 벗어나 유럽, 미국 등 서구권 국가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로 수출을 다양화 하고 있으며, 이에 소비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향후 세계 1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앞으로 개척할 지역시장이 아직도 많은, 특히 10월 이후 강력한 경제 부양책을 통해 내수 시장 활성화가 예상되는 중국을 빼고 화장품 수출 성과를 이야기하기 힘들다.

이제 필자는 중국 화장품 시장의 재진입과 성공을 꿈꾸는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에게 다음과 같은 전략적 선택을 통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중국 화장품 시장 공략을 제안하고 싶다.

첫째, 중국의 세부 지역 시장을 평가하고 나에게 적합한 시장을 선택하여 집중한다. 중국은 화장품 소비자의 니즈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충족할 수는 없다. 따라서 내 제품, 우리회사의 능력, 대중국 보유 네트워크 및 바이어 등의 사항을 고려 가장 효과적이고 효과적인 시장진입이 가능한 지역을 찾아야 한다.

둘째, 적극적인 정부지원 사업 및 수출지원 기관을 활용한다. 우리 화장품 기업의 수출 다양화 노력에 발맞추어 최근 정부는 다양한 국가의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물론 중국 진출에 대한 지원사업이 이전 대비 줄어든 편이기는 하나 아직까지 중국 진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특히, 수출지원 기관이 가장 많이 분포한 곳이 중국으로 21개 지역에 무역관을 보유한 KOTRA를 통해서는 다양한 지역의 정보와 바이어 개척, 현지화 마케팅을 도움받을 수 있으며, 사업 초기 법인 설립 전까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활용하여 진출 거점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가장 큰 방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화장품 인허가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외구격인증 획득지원사업'을 통해 신뢰성 있는 대행사 및 현지 경매업체, 최대 50~70%, 1억원 까지의 인증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 화장품 시장 변화에 대한 빠른 대응이다.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던 코로나 펜데믹은 사회, 경제, 소비자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중국 화장품 소비자의 경우 온라인 유통의 확대, 사회적 책임 및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화장품에 대한 이해 및 요구 수준 상의 변화가 나타났다.

이에, 우리 기업도 이러한 소비자 변화에 대응하여 클린 뷰티를 기반으로 한 안전한 제품, 사회적 책임이 가미된 브랜딩, 소비자 피부고민에 따른 피부 과학이 반영된 기능성 제품 개발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앞에서도 이야기한 중국 경제 상황과 소비자 소득 수준을 반영한 합리적인 가격 책정, 온라인으로 이동된 유통의 중심에 대응한 온라인 비즈니스 강화 등을 통하여 이러한 노력이 성과로 연결되고 또한 증대시키는 활동을 꾸준히 펼쳐야 할 것이다.

[한국농업신문 창간 12주년 특집] 쌀가공식품은 쌀소비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

쌀 가공식품 연구, 현재와 미래는

쌀 재고량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식생활 변화로 인해 밥쌀용 소비가 지속해서 줄어들고 있어 쌀 산업에 비상이 걸리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시도별 적정 벼 재배면적 목표를 설정하고 논에 타작물 재배를 지원하는 쌀 적정생산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쌀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 추세여서 쌀 소비 대책으로 쌀가공식품산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냉동김밥·즉석밥·떡볶이 등 쌀가공식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6% 증가한 2억 1790만 달러가 수출됐다. 이는 지난해 연말 실적인 2억 1720만 달러를 초과한 수치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에서도 쌀 가공산업 발전을 위해 찰벼, 저아밀로스벼, 유색미 등 시대에 맞춘 가공용 벼 품종을 개발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통해 종자를 보급하고 있다. 또한 지난 7월 18일 2024 쌀 신수요 창출 및 가공산업 활성화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앞으로도 산업체 수요 및 맞춤형 가공용 찰벼 단점 개량·보급, 가정간편식 소비 확대 대응 저아밀로스 육종소재 개발 강화, 건강개선용 육종 소재 개발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가공용 찰벼 '미르찰' 경제성 높아

찰벼 '미르찰'은 농진청이 육종 소재 다양화와 가공적성에 적합한 품종개발을 위해 가공용 다수 품종을 지속해서 연구한 결과, 2019년 개발한 가공용 벼 품종이다.

'미르찰'의 가공적성 우수성이 알려지면서 전북 익산을 비롯해 전남과 해남지역을 중심으로 기업체와의 계약재배가 증가했다. 이에 힘입어 2020년 19ha에 불과했던 재배면적이 2021년 271ha, 2022년 596ha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특히 익산에서 재배된 '미르찰'은 국내 제과업체들과 계약재배를 맺어 전량 약 300톤, 50ha) 제과(도넛) 원료로 공급되고 있다.

기업체에서는 쌀 가공식품을 만들 때 주로 단기가 저렴한 정부 재고미나 수입쌀을 이용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소비자들의 햅쌀 선호도가 증가하면서 가공적성이 우수하고 원료곡 원가를 낮출 수 있는 수확량 많은 가공용 다수형 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반 찰벼는 수확량이 적어 가공 용도로는 다소 단가가 높지만, 가공용 다수형 찰벼는 일반 찰벼보다 수확량이 많아 납품단가를 10% 가량 낮출 수 있어 농업인과 기업체 모두에게 경제적 이득이다.

농진청은 앞으로 품종 보급을 확대하고 재배 기술을 확립해 기존 '동진찰' 재배면적의 30%를 '미르찰'로 대체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가정간편식에 적합한 저아밀로스 벼 '미호'가 있다. 가공밥은 냉장(3°C) 또는 냉동(-18°C) 조건에서 보관된 이후에 밥알의 형태와 물리성을 유지하는 것이 상품성에 중요하다.

'미호'는 일반 쌀과 찹쌀 중간 정도의 아밀로스 함량 쌀의 아밀로스 함량을 가지고 있어 밥이 식어도 딱딱해지지 않고 찰기를 유지해 배식시간이 긴 급식용으로 적합하다.



또한 장마철의 고온 다습한 환경에도 저장성이 우수해 장마철 이후에도 부드러운 식감과 윤기를 유지할 수 있다. 동시에 탄력성, 응집성, 밥색깔 등 물리적인 변화가 적어 가공밥 제조에 적합하다. 농진청은 이에 원천 가공기술 개발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미호는 2016년 1261ha에 불과했던 재배면적이 2020년에는 10배 이상 늘어난 1만 1365ha로 확대되고 있다.

■수발아 강한 가루쌀 '전주695호'

가루쌀(바로미2)은 일반 쌀보다 덜 단단해서 가루로 만들 때 물에 불리지 않고도 바로 빨아 쓸 수 있는 품종으로 수입산 밀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쌀 수급 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가루쌀 생산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재배면적을 확대해 가고 있다.

그러나 가루쌀 품종 '바로미2'는 등숙기에 온도가 25°C 이상으로 높고 비가 많이 와서 습한 조건이 되면 수발아가 잘 되는 단점이 있어 재배 농가는 반드시 재배 지침(매뉴얼)을 지켜야 한다.

가루쌀 생산 농가는 수발아 등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농진청은 도농업기술원과 협력해 현장기술 지원단을 운영해 전국 135개 가루쌀 생산단지에 생육 단계별로 현장 맞춤형 기술을 지원해 오고 있다. 신규단지 88개소는 기술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농진청이 직접 기술을 지원했고, 전국 공통 재배 지침(매뉴얼)을 지역별 맞춤으로 세분화해 보급했다.

농진청은 수발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술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기상환경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발아 예측 기술을 개발해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서비스에 접속해 재배 필지의 주소를 입력하면 수발아 위험 정도를 3일까지 예보해 주고 있으며 서비스에 가입하면 위험 경보를 문자로 알려준다.

수발아를 줄일 수 있는 재배 기술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수발아가 예상되는 시기에 몰리브덴을 적당한 농도(30ppm)로 이삭에 처리하면 수발아를 30% 정도 줄일 수 있지만 비에 씻겨 효과가 줄어들어 현장에서 사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몰리브덴을 이삭비료에 처리하는 방안을 시험 중이다.

농진청은 가루쌀의 수발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신품종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에 '바로미2'를 수발아에 강한 유전자원과 인공교배해 가루쌀 특성을 가지면서 수발아 발생률을 낮춘 '전주695호'를 육성했다. 수발아가 최대로 발생 될 수 있는 조건에서 수발아 비율은 '전주695호'는 14.9%로 '바로미2' 45.4%에 비해 1/3 정도로 낮다. '전주695호'는 2025년 신품종으로 출원하고, 2026년 종자 증식을 거쳐 2027년부터는 농가에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농업신문 창간 12주년 발행인 기념사]

기후위기 시대 식량 파수꾼으로서의 역할 다짐



조희성 발행인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업신문 발행인·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 조희성입니다. 쌀 산업 발전을 위해 쌀 재배농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한국농업신문이 어느덧 창간 1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한국농업신문은 6만 4000여명의 쌀전업농과 쌀 생산 농업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업신문은 그동안 쌀전업농뿐만 아니라 농업분야 전반의 각양각색의 다채로운 소식들을 현장 목소리를 담아 농민들을 대변해 왔습니다.

지난해 수확기 이후 계속 하락하는 쌀값에 대해 가장 많은 기사를 배출했으며 우리 쌀전업농의 어려움을 정부에 전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농촌 현장에서는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훨씬 더 줄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벼 수매가격은 여전히 좋지 못하고 있어 우리 쌀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10월 5일 신곡 산지 쌀값은 20kg당 4만 7039원 20kg으로 10일 전 구곡 가격에 비해 7.8% 상승했지만, 전년 대비 13.5%(7,349원) 낮은 수준입니다. 전국에서 농협과 수매가

격을 협상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쌀전업농이 모두 힘을 합해 우리 쌀전업농의 권익은 물론 쌀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6만 4000여명의 단일품목 농업인 단체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면 분명 어려운 이 상황은 현명하게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쌀전업농의 목소리만 하나로 모아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농업신문은 우리 쌀 산업에 대한 인식을 드높이고, 쌀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정론을 펼치는 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주력할 것입니다. 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농업인의 어려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의견을 정부와 국회, 각종 산업종사자에게 전파하는 소임을 수행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시대 더욱 식량이 소중함이 커지고 있습니다. 식량안보의 파수꾼으로서 쌀전업농의 역할을 다짐하며 미래 100년 농업을 대변해 줄 대표적 전문지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가루쌀 활용 높이는 기술 개발

농진청은 쌀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산업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6일 쌀가루를 물에 풀어도 가리앉지 않고 고루 섞어게 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쌀가루는 물에 쉽게 가리앉고, 가열했을 때 점도가 높아지면서 떡처럼 둉쳐지는 성질 때문에 가공성이 떨어져 음료나 양념(소스) 등 액상 제품에 활용하기에는 제약이 따랐다.

가리앉지 않는 쌀가루는 일반 쌀가루를 물과 섞어 가열해 익힌 뒤 초음파를 처리하고 다시 건조해 분말로 만들면 완성된다.

초음파 처리로 쌀가루 입자크기가 작아진 데다 분자 구조가 바뀌어 점도가 낮아지고 물과의 결합력은 높아져 물에 풀어도 가리앉지 않는 것이다. 이 쌀가루는 기존 쌀가루보다 점도는 3% 수준으로 낮고, 가열하지 않고도 즉석에서 사용할 수 있다. 물에 가리앉지 않아 음료, 양념, 아·미·용 제품 등에 폭넓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쌀가루 음료 제조업체에서 이 기술을 적용하면, 유화제나 안정제를 따로 침가하지 않아도 음료가 층을 이루지 않고 고루 잘 섞여 품질이나 유통성 등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물에 가리앉지 않는 쌀가루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 연속식 초음파 공정이 개발되면 처리 시간은 줄고 생산 효율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 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쌀가루는 2018년 3만 7132톤에서 2022년 5만 4446톤으로 증가했다. 대부분 떡(27%)이나 술(25%)에 활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농진청은 우리 쌀에 토종유산균을 접목한 발효 소재인 쌀 유산발효물을 개발했으며 대장염과 과민성장증후군을 개선하는 효과를 밝혔다.

하고 기능성 식품 소재로서 산업화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가루쌀 소비 다양화 필요

농진청은 매년 우리쌀뱅 기능경진대회를 열어 가루쌀(바로미2 품종)을 섞어 만든 제과, 제빵 제품 발굴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가루쌀 생산단지 확대에 나서고 있는 만큼 앞으로 생산될 가루쌀 소비에는 다양한 활용처가 마련돼야 한다.

이에 농진청은 편의점 세븐일레븐, 어묵 전문 제조기업 (주)늘푸른바다와 협력해 가루쌀을 넣어 만든 어묵 제품 2종('쌀봉고치어묵', '매콤접사어묵')을 출시하는 등 가루쌀을 활용한 상품 개발에 나서고 있다.

늘푸른바다는 가루쌀 어묵 2종 외에도 자체 생산·판매하고 있는 다양한 어묵 제품에 가루쌀을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세븐일레븐도 가루쌀을 활용한 다양한 자체상표 상품(private brand) 제품을 개발해 판매한다는 예정이다.

또한 농진청은 가루쌀은 기름을 적게 흡수하고 발효에 유리해 급식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립식량과학원 본원(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에서 '가루쌀 소비 촉진을 위한 대형급식 현장 활용 공동 연수(워크숍)'를 개최했다.

전북 내 기관과 어린이집, 유치원 영양사 등 관계자 약 20명과 가루쌀 국민디자인단이 참석해 최근 식품업계에서 새로운 쌀 원료로 주목받고 있는 가루쌀 품종 및 가공 제품을 공유했다. 아울러 가루쌀 소비 촉진을 위해 대형급식 적용 방안과 정보를 교류했다.



회원사 동정

간호사신문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방재홍 회장은 1970년 '독서하는 국민'이라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휘호로 출발한 독서신문과 인터넷 종합경제지 이뉴스투데이의 발행인으로 언론을 통한 독서문화 발전에 힘쓰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는 이뉴스투데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 활성화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번 '사랑의 연탄 봉사'는 대한간호협회 간호돌봄봉사단이 주최하고, 사랑의 연탄나눔운동과 밤상공동체 연탄은행이 주관했다.

독서신문

방재홍 발행인, 사랑스러운 세계인 대상 수상

독서신문과 이뉴스투데이를 발행하는 서울미디어그룹 방재홍 회장이 '제13회 글로벌 사랑스러운 세계인13인 대상' 언론공헌 부문을 지난 11월 11일 수상했다.

소비자경제

CCN미디어그룹, 최재웅 대표변호사 법률고문 위촉



소비자경제(회장 한상희)를 발행하는 CCN미디어그룹이 언론의 올바른 방향을 확립하고 정치, 경제, 사회 등 각종 이슈와 사건·사고에 관련하여 고도화된 뉴스를 전달하기 위해 법무

법인 성현의 최재웅 대표변호사를 법률고문 변호사로 지난 5월 22일 위촉했다. 이를 통해 최변호사는 앞으로 CCN미디어그룹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기자들의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분쟁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맡게 됐다.

한상희 회장은 위촉패를 전달하면서 "법률적 판단이 무시된 채 무분별한 기사 생성으로 인해 인터넷 언론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라며 "사실에 기반한 뉴스를 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세심한 서비스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市政新聞

주동담 발행인, 국무총리 표창 수훈



시정신문 주동담 발행인이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장을 수훈했다. 시상식은 '제28회 노인의날 기념식' 행사에서 열렸다.

주동담 발행인은 그동안 노인들의 여가활동 및 노인복지 증진과 적극적 사회참여 지원을 통해 미래세대와 노인들이 함께 동행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활력 넘치는 행복한 노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주동담 발행인은 "언론인으로서 오늘과 같은 뜻깊은 자리에서 수상을 하게 돼 감격스럽다"며 "노인의 권리와 복지 증진에 있어 언론사로서 더욱 투철한 책임감을 갖고 미래세대와 노인들이 함께 동행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KFF NEWS

한국자유총연맹-국민대학교 업무협약 기념 학술회의



KFF뉴스(발행인 강석호)를 발행하는 한국자유총연맹이 국민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기념하고자 학술회의를 지난 12월 18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북한이 주장하는 남북2국가론 극복 방안'을 주제로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의 기조연설 이후 1세션과 2세션으로 나눠 학술회의가 진행됐다.

신규회원사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News



- ◆ 제호 : 이코노미톡뉴스
- ◆ 등록번호 : 서울 아 04439
- ◆ 발행인 : 배만섭 (사진)
- ◆ 편집인 : 배만섭
- ◆ 회사명 : (주)경제풍월미디어
- ◆ 등록일 : 2017년 03월 28일
- ◆ 주소 : 서울특별시 종구 총무로 13, 611호(총무로 3가, 엘크루메트로시티)
- ◆ 대표전화 : 02-2269-5960
- ◆ 팩스 : 02-2269-5960
- ◆ 홈페이지 : www.economytalk.kr

한의신문

윤성찬 회장, 사랑스러운 원광인상 수상



한의신문(발행인 윤성찬)을 발행하는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이 우리나라 한의학 및 원광대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사랑스러운 원광인상'을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은 '2024 원광대학교 총동문회 송년의 밤' 행사에서 열렸으며 5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올해는 한의학 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윤성찬 회장(원광대 한의대 85학번)이 의료인 분야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문신문협회보

1989년 5월 1일 창간

www.kosna.or.kr

회장·발행인 김광탁 명예회장·편집인 박두환 편집고문 김시중

부회장 함정기·김관홍·정재환·김종철
이사 이군호·박연준·강현옥·김중규
총무·방두환07217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당산동4가) 당산 SK V1 센터 E동 407호
대표전화 (02)334-7251 팩스 (02)334-7279
구독신청·광고문의 (02)334-7252 메일 kosna1964@naver.com

발행처 한국전문신문협회 | 인쇄처 한국씨티에스

△△△한국전문신문협회 회원사
△△△한국전문신문협회 임원사

이 것은 본 협회 회원사임을 나타내는 표시

35th 전문신문 인쇄의 역사
SINCE 1989

한국전문신문협회와 한국씨티에스는 전문신문의 역사를 함께 합니다.

35년 전통의 기술력과 최신 설비(HAMADA / TKS 윤전기 (4색도) ; 35,000부/H)를 갖춘 경쟁력 있는 기업, 200여개 신문제작 대행으로 실력이 검증된 기업, 고품질 인쇄와 안정적 프로세스를 자랑하는 (주)한국씨티에스는 모든 공정을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문 인쇄소입니다. 고객과의 약속을 중시하고 최고의 만족으로 보답하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사

서울시 종로구 종로로 50-1, 2층
TEL: 관리부 (02) 362-1199 / 영업부 (02) 362-6677 / 전신실 (02) 362-5311

제작센터

서울시 부평구 815번길 50-67 (온수동)
TEL: 02) 2684-3377

200여종 신문제작 대행



35년 전통 인쇄 기술력



자동화된 시스템

2024년 10~11월 정기간행물 신규 등록 현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기간: 2024.10.01.~2024.11.30.〉

등록번호	제호	회사명(법인명)
서울 다50823	안경원라이프(LiFe)	안경원라이프사
서울 다50822	농업경제	(주)농축환경신문
서울 다50821	에너지 프로슈머	에너지프로슈머사
서울 다50820	PICK	PICK사
경기 다50791	주간 뉴스데이	주간뉴스데이사
대구 다04679	더플러스미디어	(주)더플러스미디어
전남 다00455	전남in뉴스	(주)전남인뉴스
전남 다00456	에듀누리	이엔커뮤니티(주)
전남 다00454	퍼블릭뉴스 호남	(유)그린

大 韓 記 者 半 閏

세무사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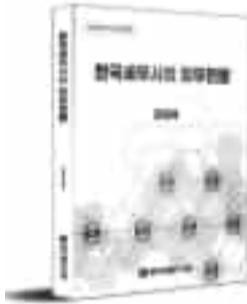
한국세무사회 회무편람

세무사신문(발행인 구재이)을 발행하는 한국세무사회가 본회와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 및 130개 지역세무사회 등 1천여 회직자의 회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세무사회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세무사회 회무편람'을 발간했다.

지난 1962년 창립된 세무사회는 상임이사회와 이사회, 그리고 각종 회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회원 참여를 위한 위원회 조직과 전국에 7개 지방세무사회 및 130개 지역세무사회를 두고 있지만 회직자들이 어떻게 회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매뉴얼이나 지침서가 전혀 없었으며, 특히 지방세무사회와 지역세무사회 회직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번에 발간된 '한국세무사회 회무편람'에는 △회직자 명단과 주요 회규를 요약한 '세무사회 소개', △회무 인계인수 등에 관한 '회무지침', △본·지방회 및 지역회 총회 등 '행사준비', △교육계획 및 정회조사절차, 규제사항 등 '회원지원', △공제와 경조, 회비기준 등 '자주 묻는 질문(FAQ)', △각종 회무서식, QR코드 등 운로드 가능한 회로고 및 서체 QR코드 '회무서식' 등 회직자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총 309페이지)이 들어 있다.

세무사회는 이번에 발간한 '한국세무사회 회무편람'을 본·지방회 임원 및 지역세무사회장과 간사를 대상으로 10월 중 배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무사회는 앞으로 회직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각종 콘텐츠와 내용을 업데이트하면서 완성도를 높여 모든 회직자가 곁에 두어야 할 꼭 필요한 회무 매뉴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언론조정중재 사례집: 손해배상금 지급 사례

2022경기조정149·150 정정·손배청구

언론사가 명백히 허위임을 인지하고도 신청인이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라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원보도 열람차단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위한 예비후보 캠프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고, '여성 직원이 성추행과 성희롱, 성폭행을 당했음을 암시하는 말을 캠프 내에서 수시로 들었다'는 캠프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하면서, 피해 대상으로 지목된 신청인의 얼굴이 공개된 동영상과 사진을 게재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은 선거 캠프에서 근무하는 동안 성추행, 성희롱, 성폭행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그러한 피해를 암시하는 말도 들은 바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피신청인 언론사는 캠프에서 홍보를 목적으로 배포한 후보자 참석 행사 사진에 대해 신청인이 후보자와 데이트하는 것 같은 사진이라고 설명하며 신청인의 얼굴을 동의의 없이 공개하는 등 악의적으로 허위 보도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정보도와 함께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조정대상보도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피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신청인의 정정 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재부는 신청취지에 따라 조정대상보도를 삭제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도록 적절한 금액의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양 측이 협의할 것을 권고했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해 조정이 성립됐다.

자료: 언론중재위원회

회원사 개편

市政新聞

독자 편의를 위한 홈페이지 개편

시정신문(발행인 주동남)이 독자들의 편의를 위한 홈페이지 개편을 실시했다.

먼저 메인화면 상단에 속보와 헤드라인 뉴스를 배치해 독자들에게 발빠르고 정확한 콘텐츠를 전달하고 있다. 이어 하단에는 카테고리별 주요 뉴스를 보여준다.



각 카테고리는 △뉴스(중앙행정, 서울시, 자치구, 자치구의회, 자치구 공단, 지방, 사회, 국회, 동영상·포토뉴스) △행정정보(행정판례, 행정용어, about 공무원, 민원상담사례, 학회·학술) △오피니언(칼럼, 사설, 시청앞, 기자수첩) △피플(공무원의 창, 인터뷰, 동정, 인사, 미담, 함께 삽시다) △기획(신년기획, 창간기획, 자치단체탐방, 기업탐방·신제품, 기획특집) △베스트행정(지방시대-행정맛집·술랭) △지방선거(서울시, 자치구, 자치구의회, 단체장 취임사) △사회문화(의학상식, 골프교실, 주간운세, 문학기행, 시정 인문학 산책, 한권의 책, 보고듣고즐기고, 시정 인문학광장) △이전기사(종합, 강북도봉노원중랑동대문, 강남서초광진, 강서양천구로영등포, 강동송파용산, 종로중국성동구마포구, 성북은평서대문, 관악동작금천, 사고, 인사, 시정신문 찾아오는 길, 건설·환경) △동영상(발행인 기념사, 창간기획, 자치단체장 축하메시지, 영상뉴스) 등으로 구성됐다.

자세한 사항은 시정신문 홈페이지(www.sijung.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협회보 칼럼모집

◆ 원고내용 : 각 산업별 이슈에 맞는 주제로

자유롭게 작성

◆ 대상 : 한국전문신문협회 회원사

◆ 문의 : 02-334-7251~2

◆ 접수방법 : 웹하드 www.webhard.co.kr

아이디 kosna, 비밀번호 kosna

[GUEST] 폴더 내 등록

메일 kosna1964@naver.com

한국전문신문협회는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주간전문신문 납본을 대행해 드립니다

누구나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도서관법 제20조」와 「동법 시행령 제13조」규정에 따라 그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자료는 국가의 지적문화유산으로 영구보전하여, 정보 제공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 납본대상자료 : 도서, 연속간행물(잡지, 신문, 대학 및 학회지, 정부간행물) 등
- ◆ 제출시기 및 부수 : 발행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각 2부씩
- ◆ 제출처 : 한국전문신문협회 납본센터,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수집과

한국전문신문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위임을 받아 납본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니 국립중앙도서관에 직접 납본이 어려우신 신문사에서는 자료를 보내주시면 국립중앙도서관 납본을 대행해 드립니다.

우편 및 방문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 SK V1센터 E동 407호

문의 ☎ 02-334-7251~2

왜? 전문신문에 광고해야 하는가?

정보 홍수시대에 전문신문은 광고매체로서 장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전문신문은 일반신문과
같이 계절이나 요일에
의한 부수의 변동이나
신문구독자의 변동에
따른 불안정이 없다.

전문신문의 광고는
광고주가 원하는 광고
시장이 명확하다.
광고목표에 도달하기
쉽기 때문에 메시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독자의 관심이 높은 기사와
병행해서 게재되는 전문신문
광고는 광고의 충격이 높다.
따라서 광고주가 자사 상품이나
기업 이미지에 알맞은 전문신
문을 선택하면 매우 효과적인
광고가 가능하다.

전문신문은 지면 허비가
적기 때문에 타 매체와의
비교해서 광고비용이 싼
효율적인 매체이다.

전문신문은 독자의 목적
의식과 강하게 밀착되어,
전문사항에 대하여 높은
안목을 갖고 편집되기
때문에 광고에 대한 관심
도도 높다.

일반신문, 뉴미디어의 정
보량 범람의 시대에
독자는 정보에 대해 방어적,
선택적 경향이 강해져
전문신문을 더 신뢰하게
된다.

전문신문의 기사면은
비교적 시각효과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광고면이 상대적으로
주의집중효과를 크게
받을 수 있다.

전문신문 광고시점에
이벤트, 기획행사 등을
동시에 진행한다면
유동경로에 쉽게 접근
하면서 광고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특히 한국전문신문협회에
가입된 전문신문은
그 품격이 검증된 만큼,
안심하고 광고를 의뢰할
수 있는 좋은 매체이다.